

WONIK MAGAZINE

WONIKIN

Vol SPRING
_ 46 2016

자유 · 소통 · 행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원익인



NEW ST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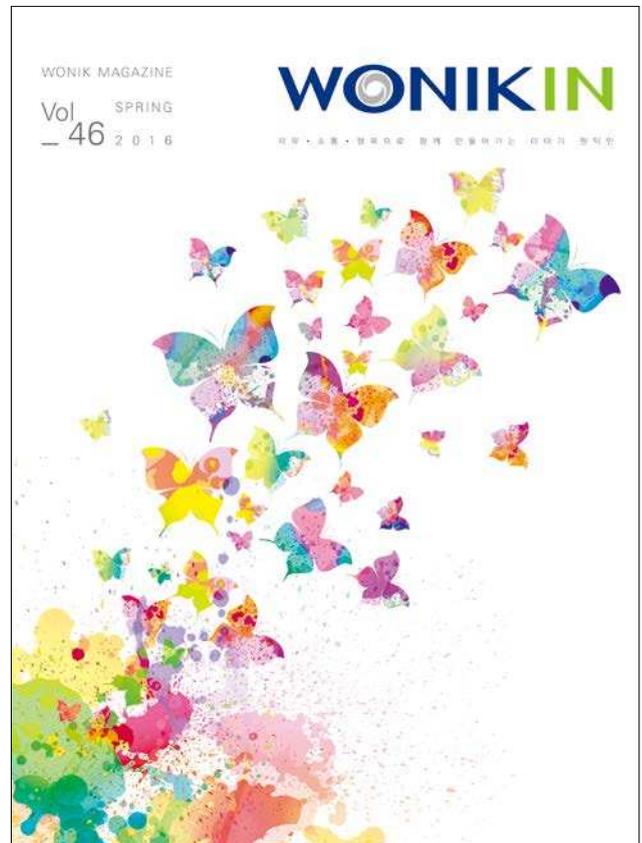
새봄

원익인 한사람 한사람의 생각을 더하여
더 큰 가치로 창조적 성장을 꿈꿉니다

CREATIVE MIND



COVERSTORY



04 **Cover story**
행복한 직장
OBS

06 **Wonik News**
원익인
계열사 소식

20 **CEO Column**
(주)원익머트리얼즈
이현덕 대표이사

CONTENTS

WONIK MAGAZINE · 2016 · SPRING · Vol.46



COVER STORY

23

내일을 향한 원익인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내일을 향한 자유

Zappos.com

COVER STORY

04 Cover story

행복한 직장 OBS

06 Wonik News

원익인 계열사 소식

20 CEO Column

(주)원익머트리얼즈
이현덕 대표이사

내일을 향한 자유

24 Special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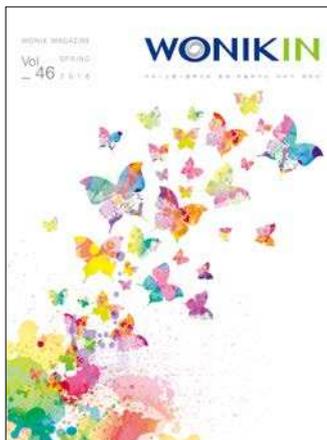
기술논문

28 Never Ending Challenge

선진기업 사례
고객 감동으로 주목받는 자포스

32 Wonik Business

리더의 책장





함께하는 소통

36 Wonik Dream Team

(주)테라세미콘
제어팀

40 Wonik Mentor

(주)원익아이피에스
개발 1팀 메탈 2파트

44 Wonik Hero

(주)원익큐엔씨
경영지원본부 시설팀 정하규 대리

가슴벅찬 행복

50 Zoom in

(주)원익머트리얼즈
낙시동호회 원익배스클럽

54 Wonik Training

명사특강
이주열 MCA 이사

58 Special Edition

(주)원익머트리얼즈
2016 상반기 사내행사

62 Wonik Club

(주)원익큐브
야구동호회 '원익 다이아몬드'

LIFE STORY

66 Festival

봄축제, 그 따스함

68 Economy

ISA & 특판적금

70 Trend

새봄, 컬러 트렌드

호주에서 가장 행복한 직장 OBS



안에 드는 기업이었는데, 2012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자국 국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OBS는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전문 기술과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를 하는 IT업체이다. 1999년부터 운영되어 온 이 기업은 점점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는 인터넷 산업 속에서 체계적이고 안정된 관리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가며 신뢰를 얻어 갔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최고 파트너상 수상을 계기로 이름을 알리게 된 이 기업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점점 영역을 확대해 가며 민간, 공공 분야를 가리지 않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호주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IT서비스 업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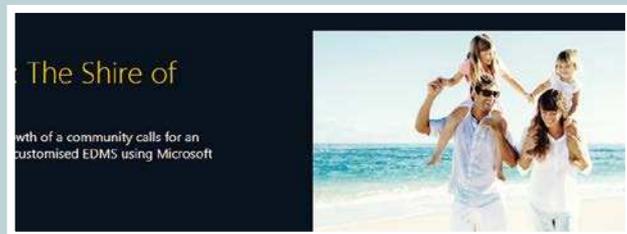
그 잠재력을 인정받아 2013년엔 글로벌 IT 솔루션 업체인 Empired의 일원이 되어 현재는 교육, 건강, 금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다.

OBS는 IT기업이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비즈니스인 만큼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직하고 열정적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민해왔다.

호주 유명 경제 잡지인 BRW 와 Great Place To Work Institute Australia에서 실시한 '가장 행복하고 근무하기 좋은 직장' 설문 조사에서 멜버른에 본사를 둔 IT컨설팅 업체 OBS가 1위로 선정되었다. 호주를 대표하는 기업 291개 업체에 근무하는 6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 설문조사는 행복한 직원이 위대한 기업을 만든다는 취지 아래 2009년부터 실시되어 호주 기업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OBS는 이 조사에서 항상 상위 10위

건강한 직장, 자유로운 일터

OBS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는 마사지부터 헬스센터 멤버십까지 제공되어 언제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적극 장려한다. 이는 에너지를 업무에 집중시키고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양산하게 해 궁극적으로 열성적이고 책임감 있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바탕이 되게 했다.



또한 유연한 출퇴근 시간을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개성과 업무 스타일을 존중하고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 접근하도록 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책을 읽는다던가 자기분야의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바쁠 때에는 시간을 더 투자해 업무에 임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직원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능동적 움직이게 하여 주체가 되게 하고 자부심을 심어 주었다. 그러한 자부심은 결국 자신과 회사 모두를 사랑하게 한다.

소통의 업무, 소통의 중요성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무는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 곳으로 오게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앞으로의 다양한 니즈까지 고려해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OBS는 가족간의 시간, 동료와의 시간을 열어주었다.

생일날에는 하루 휴가가 주어졌으며 자택근무도 경우에 따라 허용되었다. 육아를 위한 유급 휴가는 최대한 배려했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도 지급되었다. 이러한 배려는 가족,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 직원들은 자연스레 상대방에 더욱더 귀기울이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자발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사무실이 아닌 다양한 공간에서의 인간 관계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넓혀주어 틀에 갇힌 사고방식이 아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사고하는 방식을 익히게 했다.

직장 내에서는 동료들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탈피, 하나의 목표를 위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단지 회의나 보고를 자주하는 방식이 아닌 간단한 스포츠를 함께 즐기거나 노트북을 들고 카페나 복도에서 캐주얼하게 업무를 보고 생각을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 시켰다. 이러한 분위기는 부서간에 미로처럼 얽혀있는 선들을 하나로 이어주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를 시행 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OBS의 목표이며 그들의 가치 추구는 기술이 개방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얼마나 인류와 융화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원익, 행복한 인재가 훌륭한 기업을 만든다.



“기업가치의 최우선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원익 역시 선진 기업문화 형성과 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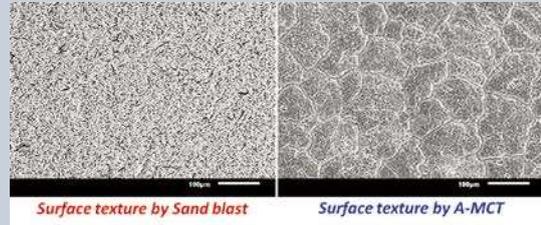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여 원익인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나누고자 하는 바람을 실천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내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취미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동체 의식과 더욱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어 내는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직원들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원익 역시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임을 알린다. 이러한 기업의 제스처는 원익인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회사는 공동체로서 함께 일을 성취하고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일터로 변해가고 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고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 가려는 OBS의 경영 방식은 ‘사람 중심’의 경영으로 즐겁고 보람찬 일터를 위해 노력하는 원익의 가치와 일치한다.

원익큐엔씨 반도체 공정 불량률 감소 관련 특허 취득

원익큐엔씨는 지난 3월 22일, 화학기상증착용 쿼츠 지그의 표면 처리 방법, 쿼츠 지그의 표면 처리용 조성물 및 그에 의해 제작된 쿼츠 지그에 대한 국내 특허권을 취득했다. 이는 반도체 CVD 공정에서 장시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박막의 박리 억제를 통해 파티클을 저감시켜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종래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Sand Blast라는 표면처리기술을 사용해왔다. 해외 선진업체만이 화학 엠보싱 처리 공법으로 표면 거칠기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Sand Blast 공법은 이러한 화학 엠보싱 처리 공법에 비하여 파티클 발생률이 높고 기계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발에 착수한 결과, Sand Blast와 화학 처리 공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익큐엔씨는 '해당 특허 취득은 해외 기술에 의존해오던 쿼츠웨어 표면처리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쿼츠웨어 표면처리 제품 국산화를 가능하게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로 인해 원익큐엔씨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고객사 니즈 충족을 통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췌원의

복부비만,
뱅크시로
뱃살다이어트 고민 해결

성인 5명 중 1명이 해당된다는 복부비만, 겨울이 지나 옷차림이 가벼워질수록 복부비만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진다. 비만은 살이 찌는 것 외에도 다양한 합병증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미용적인 측면 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질병이다.

복부비만이란 복부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복부비만을 ‘뱃속의 시한폭탄’이라 부를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우선, 복부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몸 속에 과도하게 내장 지방이 쌓여 있기 때문에 체내에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많은 이들이 복부비만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법을 찾고 있다. 그 중에서도 뱃살 다이어트 고민 해결에 큰 효과를 보이는 ‘뱅크시’가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뱅크시는 지방 감소 효과는 물론, 셀룰라이트 감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비침습적인 시술로서, 지방흡입과 같은 부담스러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뱅퀴시는 시술 시간이 30~40분 정도로 짧은 편이며, 시술 시 시술 부위에 따뜻한 온열감만 느껴질 뿐, 통증이 거의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뱅퀴시는 현재 MFDA와 한국 식약처 모두 허리돌레감소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뱅퀴시에 관해 비만치료병원 ‘댄클리닉’의 손민정 대표원장은 “뱅크시 프로그램은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출산 후 여성이나 직장인들이 단기간에 부담 없이 복부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이다”라며, “뱅크시 시술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도 선택적으로 고주파를 이용해 지방세포의 자연사를 유도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비만은 물론, 편한 시술을 원하는 환자에게 적합하며, 비너스 프리즈 등의 컴비네이션 시술을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유명 저널에서 흉터치료를 주목받는 이노젝터

음푹 패인 흉터, 튀어나온 흉터 등에서 치료효과 획기적

공기압을 이용해 회오리 방식으로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혁신적인 피부미용 의료기기인 이노젝터가 해외 유명 저널들에 인용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피부과치료(Dermatologic Therapy) 2015’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피부함몰 흉터와 구축성 반흔에 대해서 이노젝터를 이용한 피부재생 시술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김범준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필러주입 후 음푹 패인 흉터에 대한 공기압 이노젝터와 RF기기를 이용한 성공적인 치료’라는 논문을 해당 저널에 발표했다. 피부함몰흉터와 구축성 반흔이 진행되고 있는 27세 여성의 사례에서도 6개월간의 치료과정을 통해 이전과 같은 피부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음푹 패인 흉터부위는 이노젝터를 이용한 치료로 새로운 콜라겐이 생성되어 채워지면서 2개월 후부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유럽피부과학회지(JEADV, Journal of the European Academy of Dermatology and Venerology)에는 ‘이마부위에 튀어나온 흉터를 재생시키는 혁신적인 이노젝터’라는 논문이 발표되어 주목받고 있다. 흉터치료에는 성형, 박피, 필러, 레이저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대부분의 흉터치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증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이번 JEADV에 발표된 내용에서는 혁신적인 이노젝터 치료를 통해 이마부위에 폭 0.5cm, 길이 3cm에 달하는 심한 흉터에서도 단기간에 획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사례에 해당하는 흉터는 크기, 면적, 단단함 등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밴쿠버 흉터지수(VSS, Vancouver Scar Scale)로 측정하면 6에 달하는 중증의 경우인데, 이노젝터 치료를 통해 1개월만에 VSS 1로 경감된 것이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이노젝터는 다른 흉터 치료법에 비해 다운타임이 짧고 간편해서 비교적 빠른 시간에 두드러진 치료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이노젝터가 피부 치료의 세계적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일 2016 캠페인 전개



(주)원익이 2016년 3월부터 건강한 회의문화 조성을 위해 스마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창의적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서로간의 자율적인 소통이 중요한데 보통 회의 전부터 경직되기 때문이다. (주)원익은 이러한 회의문화를 개선하고자 2016 스마일 캠페인을 시작했다.

먼저 회의공간마다 캠페인 포스터를 부착하여 분위기 전환을 유도했다. 이어서 회의 시작 전 다같이 웃으며 회의를 시작하였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회의 전 가볍게 웃는 것 만으로도 분위기는 바뀌어 가고 있었다. 새봄을 맞이하여 웃으며 시작하는 (주)원익의 2016년을 기대해본다.

(주)원익큐엔씨

원익큐엔씨 인사팀, 사이트 근무자들을 위한 소통 강화 교육 실시

원익큐엔씨는 기업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3월 31일과 4월1일 양일간 기흥 물류창고와 강릉 세라믹 공장에서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두 지역은 본사인 구미나 판교 영업본부에 비해 소수의 인원만이 상주해있고, 지역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탓에 원활한 교류가 어렵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사팀 주관 하에 방문 교육 및 면담을 진행해왔다. 전년도와 경우에는 직원들이 꼭 알아야 할 신인사제도와 핵심가치내재화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직원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원하는 교육과 면담인원을 사전 신청 받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추가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 및 사내 규정 등에 대하여 질의응답하고,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직원들과의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사생활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성과 공지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었으며, 직원들의 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직원들 또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반가움과 고마움을 표시하며 훈훈하게 자리를 마무리하였다. 원익큐엔씨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이들 site를 방문하여 소통 강화와 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주)원익아이피에스

DS사업본부, 기다림 끝에 핀 봄

원익아이피에스 DS사업본부(본부장 장택용 사장)가 2015년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사업부 흑자 전환을 이루어 냈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공급 과잉 및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인해 지나긴 겨울을 보내 왔던 DS사업본부는 장택용 신임 본부장의 지휘 아래 철저부심의 노력으로 극한의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확보 및 미래 성장 동력 기반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낼 수 있었다.

시장에서는 그 동안 본부의 주력 사업이었던 LCD용 Dry etcher의 경쟁이 심화되어, 제 살을 깎아 먹는 치킨 게임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DS사업본부에서는 설비 품질 향상 및 극한의 원가 절감에 주력하여 기존 시장 1위 업체를 밀어내고 대면적 LCD 생산라인의 100%를 점유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뿐만 아니라, TFE용 PECVD 납품 및 대형 OLED 증착기 개발을 통해 향후 Flexible AMOLED 시장을 겨냥한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했다.

2016년, DS사업본부는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향후 디스플레이 핵심 설비 분야에서 선도적 기업으로 도약하여 원익아이피에스라는 Brand를 확립하는 것이다. 본부 구성원 전체가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성공을 확신하고 있는 만큼, 거리에 활짝 핀 봄 꽃처럼 DS사업본부가 계속되는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MP PLUS TFT 삼성전자 혁신우수 협력사 '대상' 수상



삼성전자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9개 계열사와 1,2차 협력사 4300여개의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 하였으며 이 행사에서 (주)원익아이피에스가 삼성전자 주관 '15년 협력사 혁신 우수사례 선정에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창사이래 최초로 받은 상이기에 그 의미가 더 뜻깊다.

'15년 원익아이피에스는 MP Plus TFT를 발족하고 삼성전자와 설비 성능향상 테스크포스(TF)구성하여 한해 동안 신규 설비 개발 및 기존 설비 품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노력한 바 기존 공정 대비 재료비를 최대 30% 절감 하고, 설비 생산능력 50% 및 설비 가동률 10% 향상된 CVD 장비 개발 개선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이로써 삼성전자는 450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MP Plus TFT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올해에는

고객사에 신규 개발 PE-CVD 장비를 런칭하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World Best No.1 / 2020년 매출 1조 2000억원 이라는 목표 하에 선진 장비회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안전 결의대회 개최



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2월 안전한 일터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전 임직원이 참여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예방의 선제적 대처를 위해 ‘안전한 일터’ ‘무재해 일터’ 구현을 다짐하였다.

안전 결의대회에서는 ‘환경안전이 경영의 제1 원칙’이 결의되었고, 임직원은 모든 업무에서 환경안전을 최우선적 반영하며,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장을 구축함으로써 대외 신뢰향상 및 사내 환경안전 기반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다짐하였다.

결의대회 이후 모든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참석자 모두 환경안전구호를 제창하고 있으며, 환경안전 아침 방송과 더불어 매월 개최되는 월례조회에서도 안전보건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원익머트리얼즈의 건강한 일터 만들기 노력의 좋은 결실을 기대해 본다.

삼성전자 “Best Partner Award” 수상



혁신적인 경쟁력 향상을 통해 삼성전자에 기여한 공로가 큰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삼성전자 우수협력사 시상식에서 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 협력사를 수상하였다.

2016년 2월 2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토포즈홀에서 실시된 우수협력사 시상식에서 원익머트리얼즈는 2015년 삼성전자 협력사 중 품질 대응 및 원가 절감 등의 우수한 협력 실적을 인정받았고, 본 시상을 통해 보다 나은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활동을 가속하여 상호 경쟁력 향상을 다짐하였다.

삼성디스플레이 “올해의 강소기업 선정”



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2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주관한 2016 올해의 강소기업에 선정되었다.

글로벌 부품업체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올해의 강소기업을 선정에는 총 35개사 후보가 경합을 벌여 11개사가 선정되었다.

이현덕 대표이사는 “원익머트리얼즈 가족 모두의 노력의 결실인 만큼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아울러 강소기업 선정을 계기로 한 단계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자, 그 동안 열심히 해준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는 선정 소감을 임직원에게 전했다.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 기업문화



원익머트리얼즈는 그 동안 다소 저조하다고 평가 받았던 기업문화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영진의 노력과 임직원 참여 속에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업문화’, ‘투명하고 진실한 소통’ 등의 기업문화의 개선 노력은 1분기 직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3.2/5.0로 작년 2.9/5.0에서 큰 폭의 조직 분위기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갖춘 원익머트리얼즈를 만들기 위해 올해 기업문화 개선 활동은 각 조직별 오피니언 리더 12명으로 구성된 직원모임 “우리함께”의 다양한 의견과 자발적 리더십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참여형 행사 추진을 통한 Fun경영을 위해 ‘우리함께 상반기 6대 행사’는 Hof Day? Hope Day! / 응답하라2006 / 셀위픽쳐 / 함께하는 봄꽃놀이 / 원익운동회 / 무비부비 등으로 진행된다.

(주)신원종합개발

경영지원부문 워크숍 개최

신원종합개발 경영지원부문은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강화군 석모도 일대에서 ‘동계 워크숍’을 가졌다.

강화도 초지진, 광성보등 역사탐방으로 시작된 이번 워크숍은, 도솔미술관 방

이천 사동리 신원 아침도시 모델하우스 성황리에 분양 돌입



문, 산악ATV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석모도 소재 보문사 관람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경영지원부부장 이호철 상무는 “이번 워크숍은 지원부문의 조직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함과 동시에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좀 더 성숙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신원종합개발(주)은 SK하이닉스(주)이천공장에 인접한 '이천 신원아침도시' 아파트로 올해 첫 분양에 들어갔다.

최근 이천시 SK하이닉스 인근에 새로이 분양되는 주거용은, 모두 오피스텔 및 소규모 빌라로 편중되고, 신규 아파트 분양이 없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 1일 내빈 및 분양관계자들의 테이프 커팅으로 시작된 견본주택 개장에는 1일부터 3일까지 주말 3일 동안 약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이천 신원아침도시'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402번지 부발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지상 15층 8개동(59㎡~84㎡) 450세대 규모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학과 통근을 편리하게 하는 학주, 직주근접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초·중·고등학교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고, SK하이닉스와는 도보 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어 통근이 용이하다. 올해 상반기에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이 개통예정이어서 서울 강남까지 약 30~40분대 진입이 가능해 SK하이닉스 증설과 함께 인구유입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차로 약1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부발역세권 개발 계획과 2017년 개통 예정인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3분내 진입이 가능한 이천C와 남이천 IC 개통 등으로 교통, 편의, 여가, 쇼핑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는 판상형 구조를 사용한 설계를 적용하였고 단지배치를 남향 위주(일부



Type 제외)로 하여 일조량과 개방감이 우수하다. 대형 팬트리와 알파룸으로 공간활용도를 높였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명과 가스, 난방을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다.

'이천 신원아침도시' 분양일정은 4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청약, 7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4월 14일, 정계약은 4월 20일~22일까지 진행한다.

(주)원익큐브

액티비티! 단합행사



지난 3월 원익큐브는 어김없이 전사 공감대행진 행사가 진행되었다. 미리 짜여진 조별로 착석하여 맛있는 바비큐로 허기진 배를 채운 후, 액티비티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하였다.

이번 게임 종목은 농구와 다트였다. 게임은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우승팀은 커피교환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우승상품이 걸려있는 만큼 직원들의 집중도 또한 최고조였다.

처음에는 상품을 위하여, 우승을 위하여 같은 팀을 응원하고 도왔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직원들은 모두 팀에 상관없이 서로를 응원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소속감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아닌 임원 농구대회가 진행되었다. 임원들은 다른 직원들의 집중도 못지않게 집중하며 흥미진진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승패와 상관없이 작은 행사로도 많은 직원들이 크게 웃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으며, 이것 또한 원익큐브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느낀 뜻깊은 행사였다.

(주)테라세미콘

CA 발대식

(주)테라세미콘은 지난 1월 26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CA(Culture Agent)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CA는 소통을 활성화하여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 구축 및 부서별 다양한 조직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조직 하였으며, 세부 활동 및 운영은 각 부



서별 CA 담당자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CA 담당자는 전체 회의를 통해 2016년 조직문화 개선 5대 과제를 선정하였고 (01 열린마음 02 소통 활성화 03 책임감 있는 주인 의식 04 창조적 리더십 05 일과 삶의 균형조화) 매월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가 경쟁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G3(부장)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주)테라세미콘은 지난 3월 29일 G3(부장)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1부 시간에는 “G3(부장)의 역할 이해”를 주제로 대표이사 특강을 진행 하였고, 2부 에는 “리더십 역량 강화 및 조직원 변화 유도”를 주제로 초청강사 교육을 진행 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 함으로써 부서의 성과창출을 주도 하는 리더의 역할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을 통한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시간 이었다.

(주)테라세미콘은 임직원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직급, 직책별 교육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주)씨엠에스랩

2016 CMSLAB 조직활성화 과정



씨엠에스랩은 지난 3월 18일 강원도 양평의 현대종합연수원에서 조직활성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부제처럼 임직원간의 연결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교육인 ‘우리는 하나’에서는 땀 흘리며 몸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용하시던 대리님이 크게 외치시는 모습도, 과장님들의 댄스타임도 볼 수 있었다. 눈을 감고 오로지 목소리에만 의존하며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통의 중요성도 느끼게 되었다. 뜻 깊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경영지원팀 진주식 부장은 “1년치 웃음을 다 웃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교육인 ‘힐링□(Healing 몸+마음)’에서는 임직원들의 사상체질을 알아



보고 각 체질에 맞는 건강관리법과 소통법을 배웠다.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게 되었다.

교육이 끝나고 캔미팅이 진행되었다. 분위기를 달구기 위해 패션쇼가 펼쳐졌다. 각 조별로 컨셉에 맞게 의상을 준비하고 당당하게 런웨이를 걸으며 패션센스를 맘껏 뽐냈다.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캔미팅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의 얼굴에 하트 스티커를 붙여주며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고, 그동안 미안했거나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얼굴에 반창고를 붙여주며 사과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팀장님들의 얼굴 전체에는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었다. 서로를 안아주고 눈물 흘려주며 마음을 풀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영업기획팀 이미선 부장은 가장 많은 반창고를 받아 '만신창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전에는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미션을 수행하였다. 대표님과 함께 제기도 차고 이사님과 셀카도 찍으며 직급과 나이를 떠나 모두가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씨엠에스랩은 이번 조직활성화 워크숍을 계기로 앞으로 조직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크레어 샴푸' 3종 출시



외부 자극과 스트레스, 노화로 인한 탈모 !

건강한 두피와 풍성한 모발을 되살려주는 탈모 두피 케어 솔루션

체질에 맞는 건강관리법과 소통법을 배웠다.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지난해 (주)씨엠에스랩의 메디컬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인 셀퓨전씨가 탈모와 두피 관리에 효과적인 '인크레어 샴푸' 3종을 새롭게 출시하였다.

이번에 출시한 '인크레어 샴푸 3종'은 공통적으로 탈모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구성된 탈모성분 복합체인 HGF™가 함유되어 있어 탈모와 두피 관리에 특히 효과적이다. 이 라인은 크게 남성과 여성용 탈모 샴푸 2종과 남녀공용 지루성 두피용 샴푸 1종을 포함하여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남성과 여성 탈모용 제품인 '인크레어 M샴푸'와 '인크레어 W 샴푸' 2종은 저자극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우수한 세정력의 약산성 샴푸로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으로 안전성을 인증 받았으며 '징크피리치온'을 함유해 비듬 및 가려움을 방지하고, 우수한 유·수분 밸런싱을 통한 두피 보호 효과, 멘톨과 은행잎추출물 성분으로 두피에 청량감뿐 아니라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다.

특히, 남성용 '인크레어 M 샴푸'는 남성화를 더욱 강화시킴과 동시에 모발 성장을 억제 시키는 DHT 성분의 생성 방지를 통해 건강하고 풍성한 모발로 가꿔주며, 여성용 '인크레어 W 샴푸'는 식물 유래 성분이 출산 및 다이어트로 인한 두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하고 영양 밸런스를 맞춰 부드럽고 풍성한 모발로 가꿔주는 효과가 있다. 지루성 두피용 '인크레어 S 샴푸'는 셀페이트 프리 포뮬라의 저자극 지루성 두피염 전용 탈모 샴푸로 두피의 과다 피지를 조절하고 비듬 원인균을 억제하여 염증 없이 깨끗한 두피로 개선해준다. 이 제품은 최소 8주 동안 주 2~3회 사용하고, 인크레어 M과 W샴푸를 사용하지 않는 날에는 두피 자극 완화 샴푸인 인크레어 S 샴푸를 병행하여 사용하면 더욱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포스트 알파 센테카솔 연고 출시



시술 및 외부 자극에 의해

예민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재생연고

2016년 3월, ㈜씨엠에스랩의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인 셀퓨전씨가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올해 첫 선보이는 이번 제품은 시술 및 외부 자극에 예민해진 피부의 건강함을 되찾아주는 포스트 알파 라인의 재생 연고로서 해당 제품은 봄 시즌에 맞춰 출시된 만큼 피부 보호막 형성과 보습력 유지를 위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재생 연고로, 파라벤을 첨가하지 않아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여 더욱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주성분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과민감성 피부를 진정하는 기능으로 알려져 있는 센텔라정량추출물로, 이 성분이 콜라겐 생선을 촉진하여 트러블에 의해 손상 받은 피부와 고민성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약국 판매 재생 연고에 비해 유분감과 끈적임이 적어 국소부위는 물론 얼굴 전체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신경 안정 및 근육 이완에 효과적인 라벤더 향이 시술의 통증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 이 제품은 자외선 등 외부 자극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 시술 후 약해져 지속적인 재생 케어가 필요한 피부, 보습과 영양만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노화 피부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2주 이상 꾸준히 사용 시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주)원익투자파트너스

더 큰 도전을 향한 산행

2016년 1월 8일, 원익투자파트너스 임직원들은 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청계산 등반으로 시무식을 진행하였다. 추운 날씨였지만 임직원들이 정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산행하고, 땀 흘리며 서로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산행 이후에는 전임직원이 참석한 팀워크를 돈독하게 다질 수 있는 저녁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다. 매년 진행되는 시무식이지만 임직원들에게는 새해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회사정상과 도전을 위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소통의 시간 FUN, FUN, FUNDAY 개최

지난 3월 24일 원익투자파트너스의 2016년 1분기 FUNDAY 행사가 진행되었다. 원익투자파트너스는 업무능력 향상과 임직원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분기마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FUNDAY 이름에 걸맞은 재미난 게임들과 2016년 첫 우수사원 시상식으로 그 어느 때보다 행사의 열기가 뜨거웠다.

첫 번째 게임은 전 임직원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룰렛 게임이었다. 룰렛 게임에서 이용성 사장과 이수범 부사장이 당첨되어 복불복 추첨을 통해 장식품을 착용하는 벌칙을 수행하면서 더 즐거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 게임인 다트 게임에서는 본부 회식, 상품권, 임원과 의 식사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1분기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직원을 축하하며, 간단한 다과를 하는 것으로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원익투자파트너스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임직원의 참여도를 높여 '소통하는 기업문화', '즐거운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주)원익홀딩스

가치는 높이고
역량은 더욱 집중

(주)원익홀딩스 공식출범

(주)원익아이피에스와 윈윈(win - win) 한다 !



(주)원익아이피에스가 (주)원익아이피에스와 (주)원익홀딩스로 인적분할을 단행, 지난 4월1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주)원익아이피에스 지제사업장에서 (주)원익홀딩스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의 제조사업부문인 (주)원익아이피에스와 특수가스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주)원익홀딩스로 분할해 운영한다. 이는 사업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에서 (주)원익아이피에스의 가치를 높이고 장비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원익아이피에스(존속법인)는 지난 2월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원익아이피에스(신설법인-가칭, 대표이사 변정우)를 설립하고, (주)원익아이피에스(존속법인)는 (주)원익홀딩스(대표이사 이재헌)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분할 전 채무와 관련해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4월1일 (주)원익아이피에스 지제사업장에서 열린 (주)원익홀딩스 출범식에는 (주)원익홀딩스 이재헌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원익홀딩스 이재헌 대표이사는 "(주)원익아이피에스와 (주)원익홀딩스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분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더 좋은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복한 기업문화는



개인의 성장과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

“직장인에게 ‘행복’이란 업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이를 통해 업무 성취감과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회사에서의 행복이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행복에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이현덕 대표이사

올해 초 (주)원익머트리얼즈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현덕 대표이사는 행복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 조직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현덕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 지난 4개월여 간 여러 조직문화 개선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현덕 대표이사는 (주)원익머트리얼즈의 첫 인상을 묻는 질문에 “자기 소임을 묵묵히 책임지고 열심히 하려는 직원들의 순수함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서 “이러한 우리 직원들이 더욱 신명이 나고 효율적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도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존재하고 있던 조직간의 장벽은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 부족, ‘나보다는 네가 먼저’라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또한 자발적인 업무수행 보다 다소 수동적인 모습이 아쉬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현덕 대표이사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행사(전사 체육대회, 부서별 여행 등)

를 통한 fun 경영과 경영 현황 공유 및 회사와 직원간의 투명하고 진실한 소통의 장(월례회, 간담회)을 마련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의 필요와 특성에 맞게 자발적으로 여러 활동을 기획, 실행할 수 있도록 부서차원의 활동 역시 독려,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개인들의 고충과 제안을 들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최근 실시된 자체 조직문화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났다. 작년 말 대비 만족도가 개선되는 결과를 얻

게 된 것. 이현덕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반드시 우리 임직원이 만족하는 좋은 기업문화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회사의 성장과 비전 인재 육성에 달렸다

현재 (주)원익머트리얼즈는 개개인의 성장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신입사원들을 위한 멘토링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NCS 기반 교육프로그램과 현장훈련을 병행하고, 참여한 직원 60명에게는 국가공인인정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일학습병행제를 4월부터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환경안전 관련 제안, TPM 관련 활동 및 우수제안 등 각종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격려하고 있다.

이현덕 대표이사는 “지난해 직원들의 기업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회사의 성장과 비전에 비해 직원들의 성장 기회

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눈에 띄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임직원 개인의 성장 즉, 인재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CEO의 역할”이라며 “권위적이기 보다는 servant형, 지시보다는 coaching형의 리더십이 직원들의 창의성을 북돋움으로써 미래에 더 좋은 성과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CEO뿐만 아니라 조직 내 리더 역시 직원들이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리더와 직원간의 공동목표 의식이 확고해지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책임감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원익머트리얼즈의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전의 제2공장, 오창 신규부지에 건설 중인 프리커서와 가스 연구를 위한 R&D센터와 프리커서 생산공장 완공이다. 이에 대해 이현덕 대표이사는 “올해 이 두 공장이 성공적으로 완공이 되어 우리 회사의 비전인 글로벌 특수가스 회사로의 성장에 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주 고객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장비의 성능개선을 통한 미세화 공정으로 제품 특성과 생산성,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의 발전이 이제는 매우 힘든 일이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재료들의 특성 향상을 통해 제품의 발전을 꾀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런 관점에서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앞으로 많은 기회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글로벌 재료회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Special Edition

기술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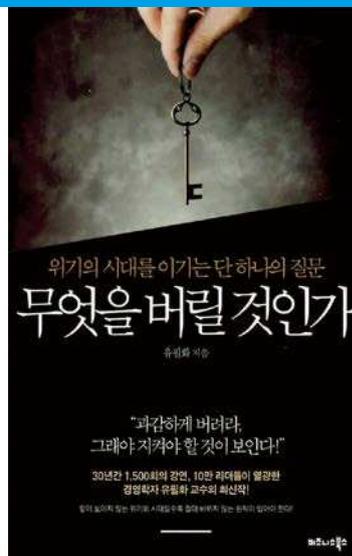


Never Ending Challenge 고객 감동으로 주목받는 자포스



Wonik Business

리더의 책장



내일을 향한 원익인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내일을 향한
자 유

3D NAND Word line용

Low Fluorine ALD-W Film 개발

반도체 연구소 개발 1팀

윤원준 부장

우수 인력의 보강과 장비를 만드는 기법의 변화
(새로운 부품 개발, 부품의 동작 Monitoring 방법,
품질관리)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장비가 추가로
탄생 되기를 기대한다.





Memory 업체들이 20나노급 양산에 성공한 이후 서버, PC, 모바일 등 전 부문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적용 비중은 아직 높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10나노급 진입이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20나노 초/중반대에 진입하면서 기술 구현이 난해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Memory 업체들은 현 설비로 10나노급까지 미세화 공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개발이 많이 진척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나노급으로 미세화되면서, 기술의 난제 중의 하나가, 3D NAND Device의 Word line (그림1)으로 사용되는 LFW (Low Fluorine Tungsten) 공정 개발이다. 3D Device의 Word line으로 사용되는 W Film은 기존 CVD방식을 사용하였지만, 10나노급으로 가면서 기술의 한계성이 보여 새로운 방식이 필요/요구 되어지고 있다. 즉, 표1에서 보는것과 같이, W Film의 Low Stress화, 저저항화, Gapfill 능력 향상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Low Fluorine W film), 2008년부터 개발한 CVD 방식의 W film에대한 지식과 2012 3Q 에 시작한 ALD-TiN 공정에서 쌓은 H/W의 노하우를 접목시키고, 새로이 조직된 Simulation 팀으로부터 유체의 흐름과 Gas feeding/ purge time 최적화를 Support 받고, 기구/전장 설계팀으로부터 이상적인 ALD process를 구현할 수 있는 Chamber설계를 통하여 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방식의 W Film을 2015년 1Q부터 개발 1팀장 주도로 본격적으로 공정 개발에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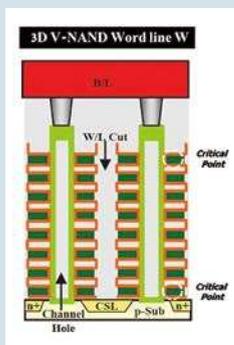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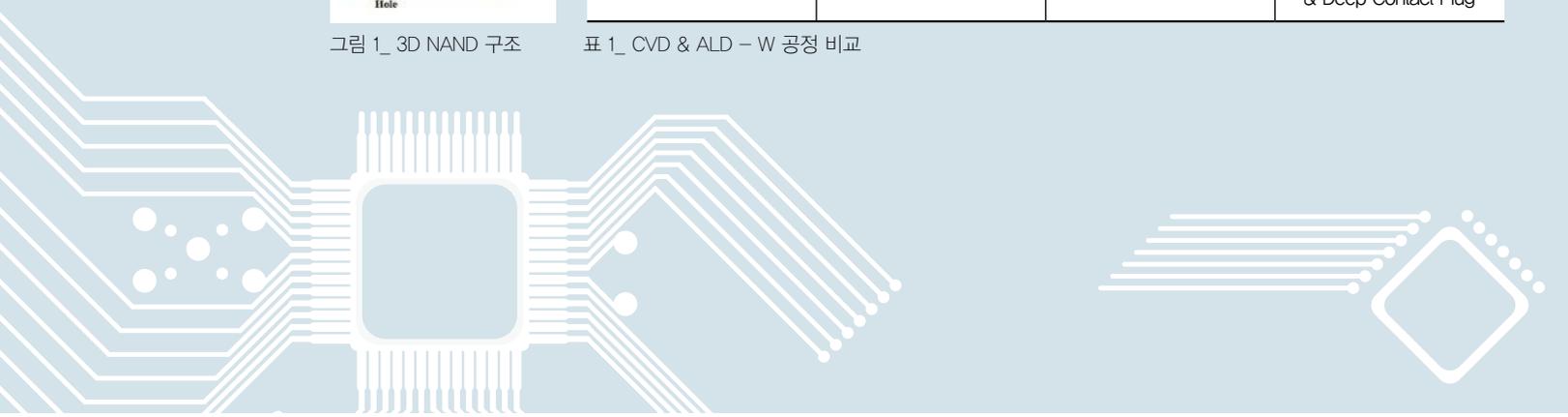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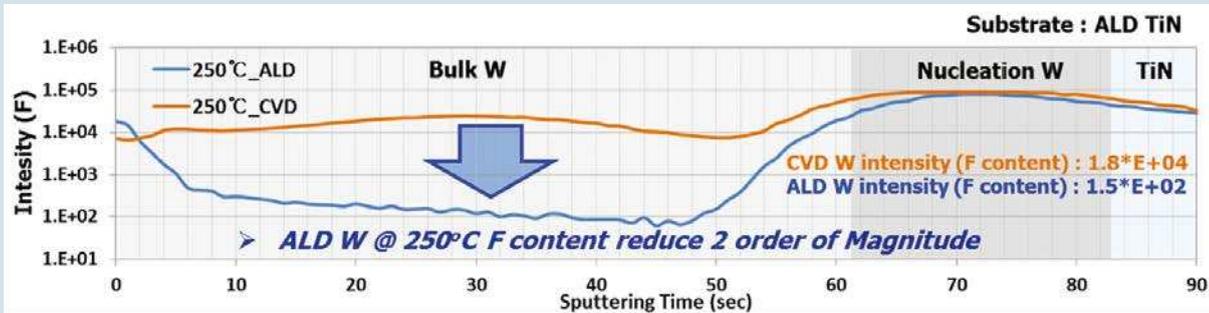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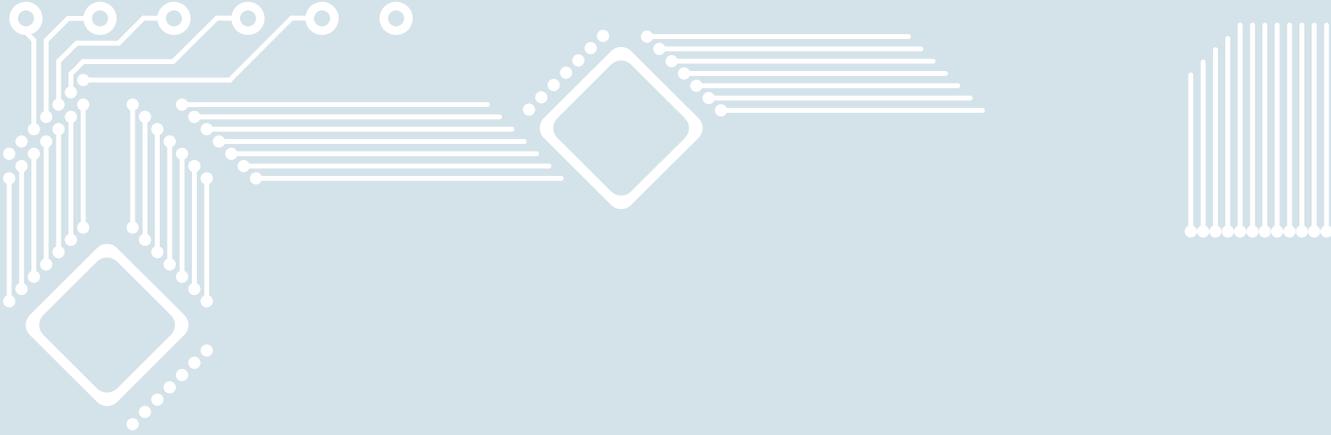


그림 1_ 3D NAND 구조

Item	CVD	ALD	R / M
Resistivity ($\mu\Omega\text{-cm}$)	Higher	Lower	Lower "F" content @ ALD
Stress	2~3 GPa	< 1 GPa	
Film Roughness	Normal	Excellent	< 0.5Ra
Stack Gapfill	Limited @ ~ V4	Good gapfill @ > V6	
UPEH	Higher	Lower or Similar	Multi - ch
Extendibility	Limited	Unlimited	Ultra Narrow hole & Deep Contact Plug

표 1_ CVD & ALD - W 공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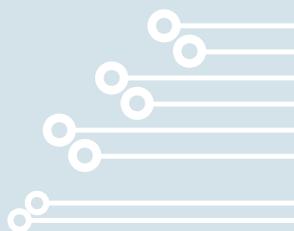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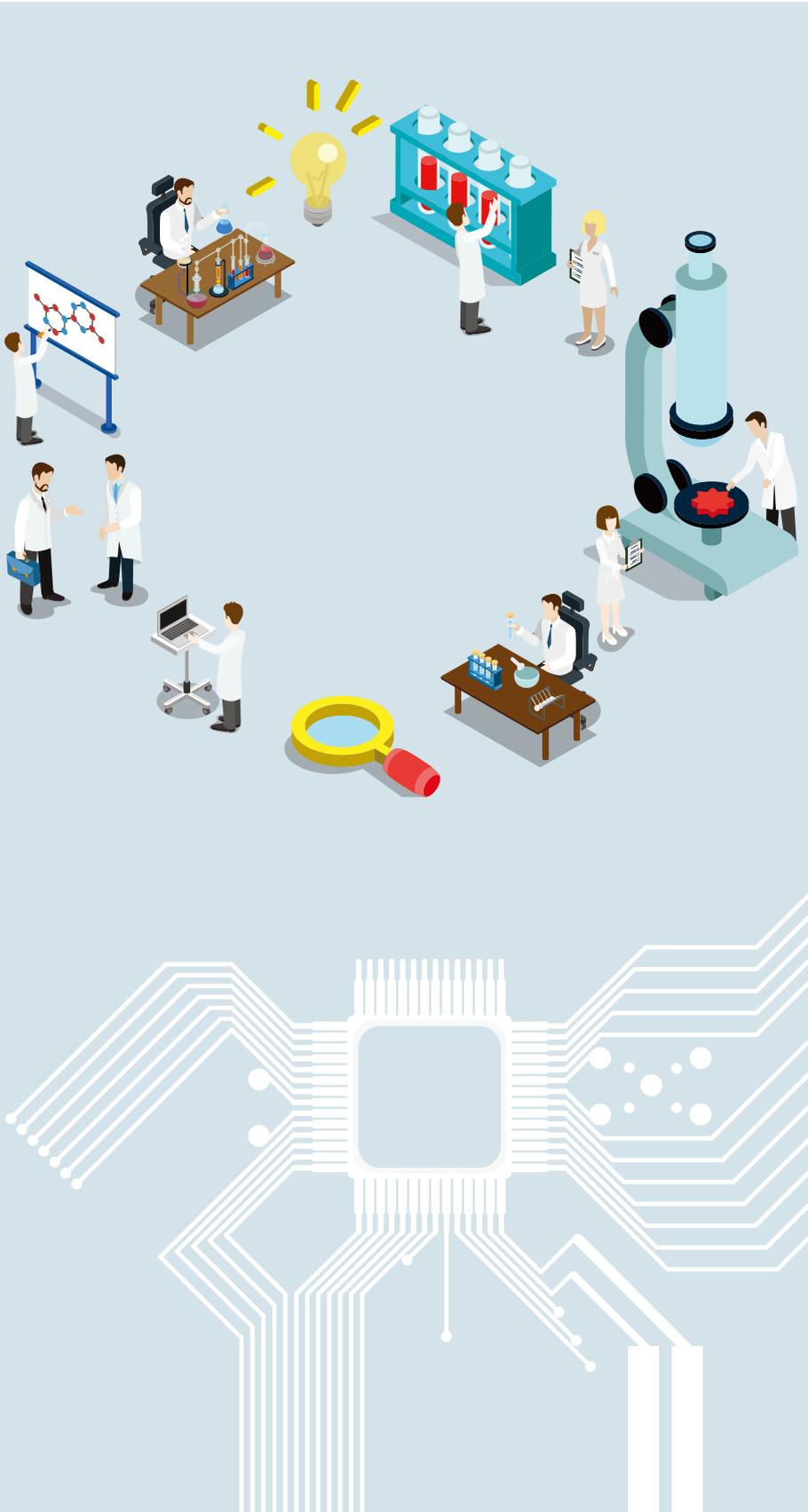


ALD 방식으로 가면 CVD방식대비 생산성이 나빠지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였고, W Film의 Quality를 개선하여 경쟁사인 L(사) 설비와 견주어 비교 우위를 선점하였고, 특히 W film의 중요 포인트로 보여지는 Film 내의 Fluorine Content Level (그림2)이 Device의 BV (Breakdown Voltage)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W Film을 형성하는 Nucleation step과 Bulk step의 process 조건을 SIMS분석으로 최적화하여 Fluorine content Level (기존 CVD-W 대비 1/1000 수준)을 최소화 하였으며, 개발된 ALD-W Film으로 Memory 업체 Demo를 진행하여 3D (V4급) Device Qualification (BV Pass율 100%, 경쟁사는 80% 수준)을 받아 Memory 업체에 설비 JDP 체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JDP를 통하여, 국산설비는 공정과 H/W에 취약하다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사료되며, 2nd 업체가 아닌 명실상부 1st 업체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20년이 넘어가는 장비 개발의 Now-how가 이제 국내 장비업체에서도 서서히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수 인력의 보강과 장비를 만드는 기법의 변화 (새로운 부품 개발, 부품의 동작 Monitoring 방법, 품질관리)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장비가 추가로 탄생되기를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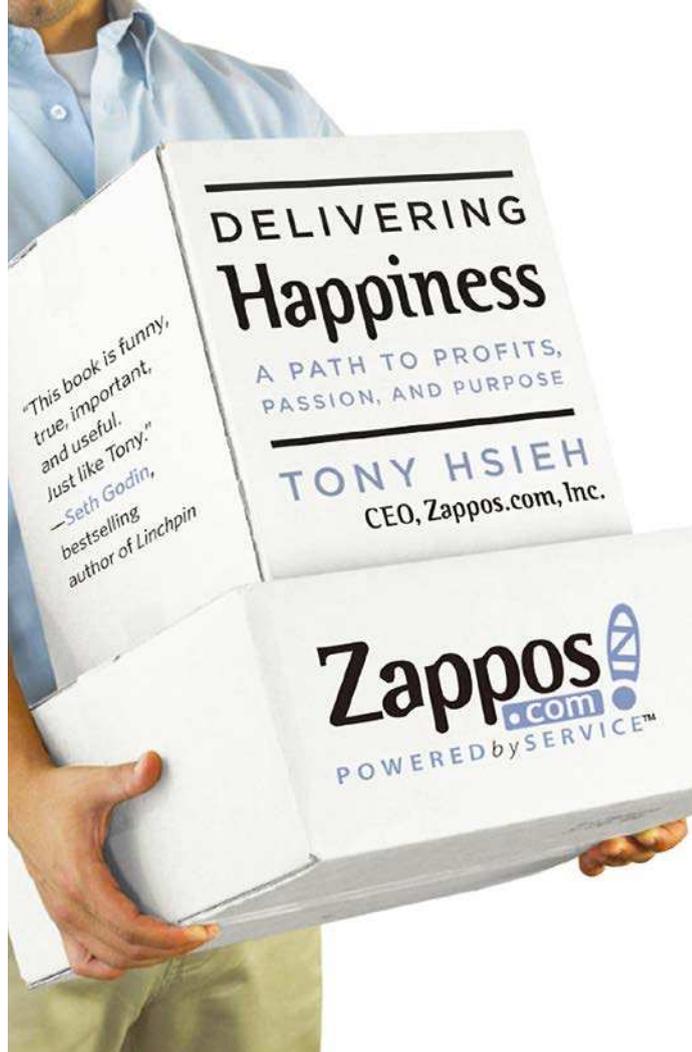


또한, ALD-W 장비가 차세대 Device의 성능향상과 제조 기술 현장에서 다각적으로 사용되어 원익IPS 장비의 우수성을 인정 받으면서 국산 설비업체로 또 다시 Jump-up할수 있기를 기대 한다. ALD-W 장비가 차세대 Device의 성능향상과 제조 기술 현장에서 다각적으로 사용되어 원익IPS 장비의 우수성을 인정 받으면서 국산 설비업체로 또 다시 Jump-up할수 있기를 기대 한다.

행복을 전하는 기업, Zappos

우리 원숭이를 소개합니다

자포스(Zappos)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다. 이 기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지 매출이 높아서가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2011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되고 직장 내에 상사가 없으며 고객을 대하는 기본 매뉴얼조차 없는 이 독특한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포스 홈페이지 www.zappos.com 하단부 회사를 소개하는 About란을 살펴보면 임원을 소개하는 란 제목을 '우리 원숭이를 소개합니다' (Meet our monkeys)라고 적어 놓았다. 회사 CEO와 중심 임원들을 대놓고 원숭이라고 칭하는 이 회사에는 과연 어떤 성공 열쇠가 있는 것일까?

고객을 위해서라면

자포스는 1999년 라스베이가스에서 신발 전문 쇼핑몰로 출발했다.

그 후, 회사의 매출은 연평균 100%씩 늘어나 10년 만에 16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급성장 했다. 이처럼 경이로운 성장은 자포스를 단순히 미국 온라인 신발 판매 1위 업체로 끌어올렸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고객센터와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재고가 없으면 경쟁 사이트를 검색해서라도 알려주는 무한 감동 서비스를 통해 계속해서 고객들이 찾아 오게끔 하고 있다. 2009년 7월,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아마존은 자포스를 12억 달러라는 어마한 가격에 인수함으로써 또 한번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다.

한 여성 고객이 몸이 편찮은 어머니를 위해 자포스에서 신발을 구입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신발을 신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만다. 슬픔에 젖어있던 그녀에게 자포스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는데, 구매한 신발이 마음에 드는지를 묻기 위한 메일이었다. 그녀는 아픈 어머니를 위해 구입한 신발이었지만 한 번 신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 신발을 반품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다. 며칠 후 자포스에선 반품 처리와 동시에 그녀에게 한 다발의 꽃과 위로의 편지를 전달했다.

“감동 때문에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받아 본 친



지금까지 받아 본
친절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자포스의 성공 비결은
행복을 전달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



절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만약 신발을 구입하신다면 인터넷 쇼핑몰 '자포스'를 추천합니다.”

2007년 7월 7일, 그녀의 블로그에 쓴 이 사연은 네티즌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시엔 작은 쇼핑몰이었던 자포스는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자포스의 입장에서 어찌면 당연했던 이 고객 서비스는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과 더불어 사람과 사람이 거래를 한다는 따뜻함을 전달해 제품 그 이상의 감동을 전파시켰다.



우리는
세상에 행복을 배달합니다

자포스의 창업자이자 CEO인 토니 셰이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렇게 정의했다.

“우리는 단순히 신발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고객이 모두 행복을 느끼는 것, 그러한 방식을 구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업에서는 찾기 힘든 놀라운 경영 방식은 그들이 어떻게 고객에게 접근하는 지에서 알 수 있다. 자포스의 컨텍센터에는 메뉴얼은 물론 고객의 요청에 이렇게 답하라는 지침도 없다. 주문이나 문의에 대한 대응은 전적으로 컨텍센터 직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결국 그들은 정해진 대로 응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과 가치로 고객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고객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것. 행복을 전달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 자포스가 창업 10년 만에 연 매출 10억달러라는 기적 아닌 기적을 이룬 성공 비결이다.



어느 날, 전 직원은 자포스의 CEO 토니 세이에게 메일 한 통을 받는다.

“우리는 앞으로 상사없는 직장을 만들려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은 회사를 떠나 주세요.”



토니 세이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상사 없는 직장을 공고히 했다. 개인의 가치관과 역량에 따라 역할이 주어지고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권과 발언권이 동등하게 주어졌다. 유연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일하는 직원들이야 말로 자포스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 여기는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결정이다. 전통적인 조직 체계와 관료주의를 내려 놓음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에서 리더가 되고 자포스가 정말 나의 회사라는 애정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한 그의 선택이 더욱더 자포스의 미래를 궁극하게 한다.



자포스와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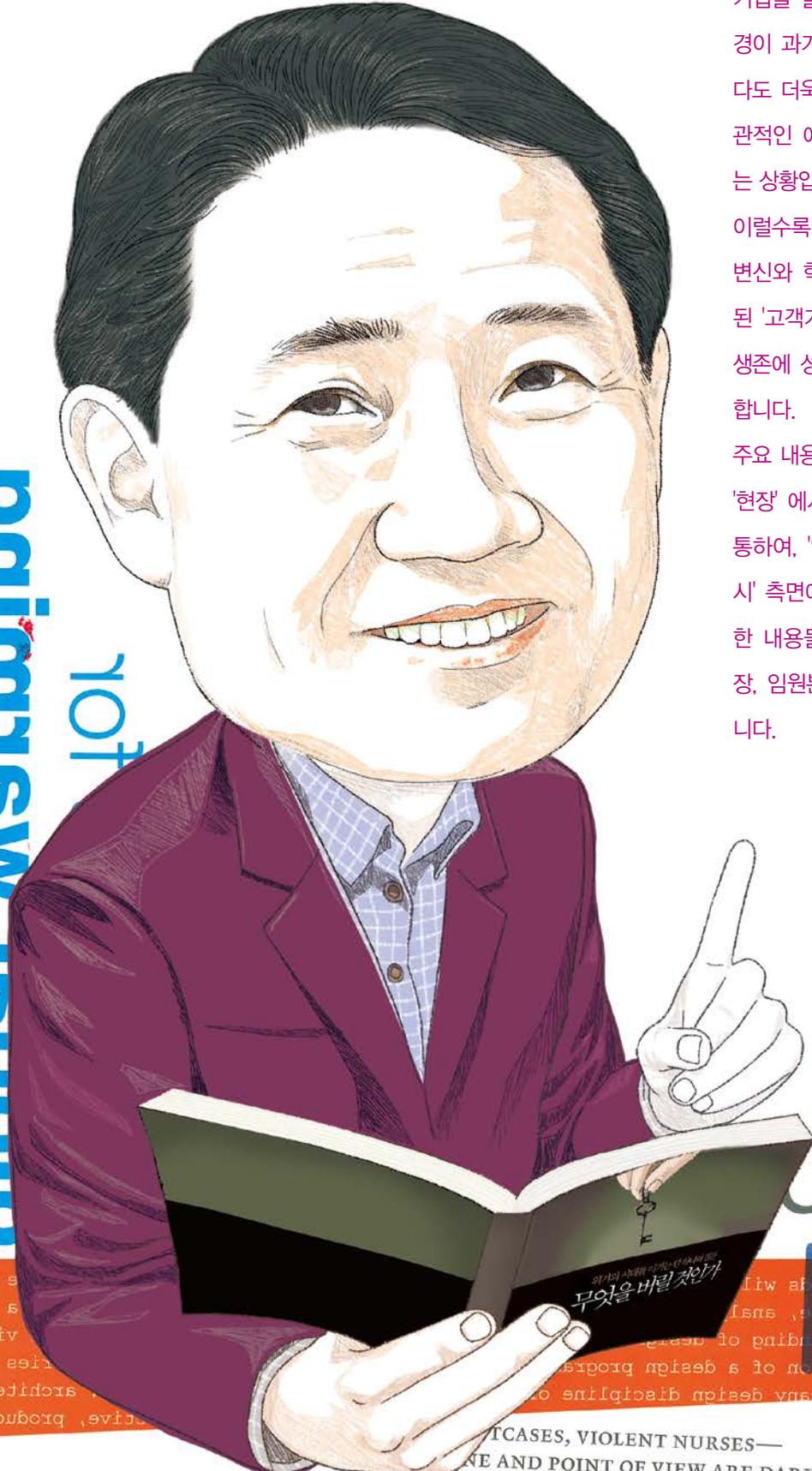
자유, 소통, 행복의 가치를 바탕으로 두고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고 있는 원칙은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신념하에 끊임없이 노력하며 변화를 포용하려 하고 있다. 자포스와 같이 세계 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스토리를 보며 원칙 역시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를 통해 발전해 갈 것이며 소통을 통해 고객과 투명하고 진실된 관계를 맺으려는 그들의 기업 정신은 원칙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목표와 뜻이 맞닿아 있다.

글 윤보라 · 사진출처 자포스 외



Our mission is to eliminate the inconvenience of cold winters. From the White House to your house, there are many ways to help

priming
of



기업을 둘러싼 경영, 경제 환경이 과거 IMF, 금융 위기 보
다도 더욱 암울할 것이라는 비
관적인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
는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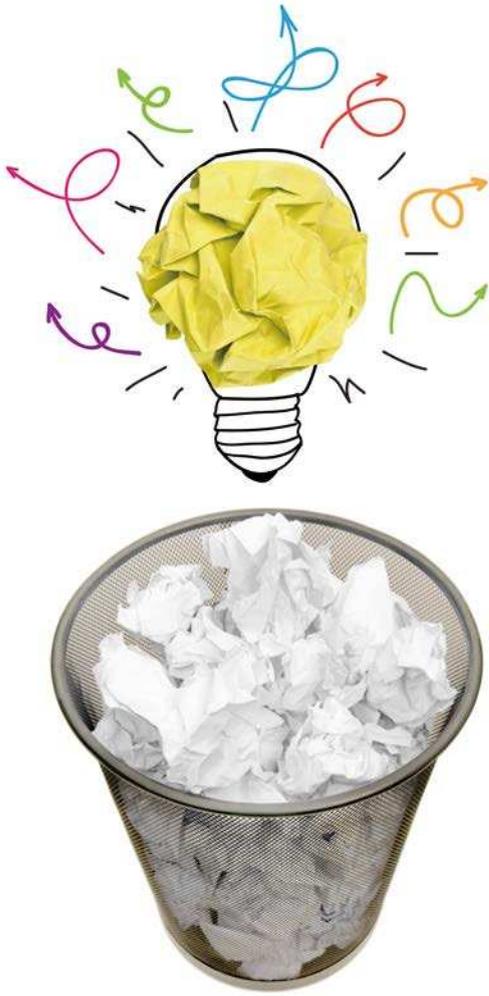
이럴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변신과 혁신을 꾀하고 차별화
된 '고객가치'를 만들어 내야만
생존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과거 '전쟁', '기업',
'현장' 에서 필자의 인사이트를
통하여, '인재', '혁신', '이익중
시' 측면에서의 방향성을 제시
한 내용들이라 여러 간부, 팀
장, 임원분들께 추천하고자 합
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현드림

...TCASES, VIOLENT NURSES—
...NE AND POINT OF VIEW ARE DARK,
...ONAL, AND PERFECT FOR THESE TIMES.

By Rick Poy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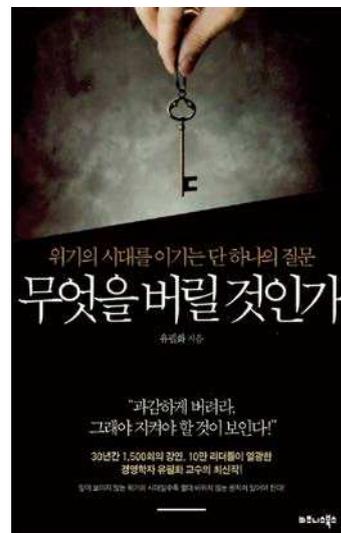
도전정신은 달콤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독이 든 성배이기도 하며, 스스로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만이 살아남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새로운 시장을 열수 있는 기회가 되며,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한 것처럼 혁신의 아이콘으로 우뚝 설 수 있다.

다소 복잡하고 난해한 경영의 본질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쓰는 저자의 탁월함을 이번에도 심분 살려 경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이 책은 조직과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 앞으로 그 자리에 도달할 예비 리더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원익인 모두에게 힘이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글 · 사진출처 교보문고 & YES24 홈페이지

어야 하는지 알려 준다. 전 세계를 매료하고 있는 초일류 기업들, 특히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히든 챔피언들을 통해 왜 지금 경영의 방점을 혁신에 두어야 하는지, 무한 혁신을 위해 취할 것과 배제할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제 3장 ‘이익을 내지 못하면 모두 버려라’에서는 치열하고 냉혹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검증된 전략과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또한 매출 또는 시장점유율 위주의 사고가 팽배해 있는 오늘날의 경영 환경 속에서 왜 이익을 중심에 놓고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지를 설파한다.

버린다는 것은 참 어렵다. 그것은 항상 선택의 순간에 놓여진 자신의 모습을 느끼며, 선택이 잘못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중압감에 눌릴 수 있기 때문이며, 다시는 기회가 생길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기업에 있어서





Wonik Dream Team (주)테라세미콘_ 제어팀



Wonik Mentor 멘토 & 멘티_ (주)원익아이피에스 개발1팀 메탈2파트



Wonik Hero 원익 히어로_ (주)원익큐엔씨 경영지원본부 시설팀 정하규 대리

원 익 인 의 진 실 한
마음으로 함께 나눔은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함 께 하 는
소 통



젊음과 열정이 만들어낸 화합 !

(주)테라세미콘 제어팀

(주)테라세미콘 제어팀은 구성원들의 평균 연령이 33세로, 젊음이 가진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팀이다. 그리고 이를 강점으로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업무는 물론이고,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함께하며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주)테라세미콘 제어팀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설비의 소프트웨어를 관리, 제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다. 반도체 웨이퍼 공정 중 열처리를 하는 설비의 제어를 담당하는 곳으로, 제어1파트와 제어2파트로 나뉘어져 근무하는 이 팀은 현재 김계현 부장을 중심으로 총 30명의 인원이 함께하고 있다.

지난 4월6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주)테라세미콘에서 만난 이들은 팀 소개를 부탁하는 질문에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팀이다,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성원은 총 30명이지만 외근이 많고 국내외 출장이 많은 팀이라 평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주)테라세미콘 제어팀 김계현 부장은 “평소 팀 화합을 위해 분기마다 워크샵이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다같이 가까운 펜션을 찾아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2분기에는 서바이벌, 3분기 수상레포트, 4분기 단풍놀이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2개월 마다 외부의 커피숍에 모여 티타임을 갖는 등 평소 회사 내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분기별 워크샵이나 특별활동은 매달 진행하는 팀 미팅에서 선정하며, 팀 전체 활동 외에도 팀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취미생활을 함께 즐기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규 대리는 “젊은 직원들이 모인 팀이라 그런지, 업무 외에도 주 3회 음주 가무는 기본이다.(웃음) 물론,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자연스럽게 단합하고 있다”면서 “그때 그때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헬스장도 함께 다니고, 낚시나 스키 등 운동이나 여가생활을 즐긴다”고 말했다. 이어 한문수 사원은 “입사하고 현재까지 두 달 정도 근무했는데, 이런 분위기의 회사는 처음”이라며 “팀원들이 서로 잘 멩치고 마음도 잘 맞는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 업무에 더욱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서로를 배려하는 업무 분위기 속 시너지도 UP!

(주)테라세미콘 제어팀 김계현 부장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업무 분위기가 최대의 장점”이라고 꼽았다. 자율적인 분위기 아래에서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며 서로의 업무를 도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제어1파트는 파트장을 중심으로 업무가 관리되며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리더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제어2파트는 업무들을 소파트로 묶어 각 소파트 마다 한 명의 리더를 중심으로 업무 및 인력 조율을 하여 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항법모 부장은 “우리 팀은 젊음을 강점으로 업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정신력이 강

하다”며 “또한 소프트웨어를 관리, 제어하는 사람들답게 유연한 사고로 타부서와도 자유롭게 열린 마음으로 융화하며 업무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어팀은 여름 휴가를 최소 9일을 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한 명의 직원이 9일 간의 휴가를 즐기는 동안,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만큼의 자신이 있기 때문. 김계현 부장은 “개인 1명이 잠시 이탈했다고 해서 팀 운영에 혹은 업무 진행에 문제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팀원 모두가 서로를 Back up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욱 사원은 “9일 동안의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건 내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다는 의미와 동시에 내가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팀원들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지난해에도 9일 간의





휴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올해도 역시 해외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개인의 성장이 회사의 경쟁력 !

항법모 부장은 올 한 해 계획에 대해 “팀원 개개인의 성장을 통해 회사가 한 발 더 나아가 글로벌 TOP10에 올라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개인의 성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팀원들은 각자 올 한 해 목표를 세워 개인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윤철용 사원은 “입사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업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 올해는 더욱 업무에 매진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회사에서 교육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영어공부도 열심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재현 사원 역시 “회사, 그리고 팀 내에서도 자기계발을 적극 지원해준다. 현재 온라인 교육을 듣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계획적으로 교육을 들으며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명수 과장과 윤상일 과장은 올 한 해 ‘행복’과 ‘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건강’과 ‘힐링’을 꼽았다. 장명수 과장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처럼 올해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표준 체중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별다른 큰 문제없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윤상일 과장은 “힐링을 하자”가 올해 목표라며 “그동안 바쁜 업무로 인해 가족들과 캠핑을 자주 다니기 힘들었는데, 올해는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 계획이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끝으로 김계현 부장은 “팀원들 모두 현재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거라 믿는다.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면 그만큼 자율이 주어지는 만큼 현재 주어지는 자율보다 더 많은 자율을 뺏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 줄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뿐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도 큰 문제 없이 무탈하길 바란다”며 “제어팀에는 총각들이 많은데, 하루 빨리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2016년 새롭게 원익 가족이 된 '원익 대졸 신입사원 공채2기'에는 총 35명이 최종 합격했다. 지난 1월4일 시무식 참석을 시작으로 신입사원 합숙 입문교육을 받고 계열사에 배치된 이들은 현재

각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을까.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신입사원, 그리고 이들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와 조언을 하는 선배직원의 케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시기다.



“소통의 시간을 통해, 더 큰 내일을 꿈꾸다!”

지금 처럼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미래의 목표들,
선배의 이꿈과 후배의 따름이 더 큰 내일을 열어간다.

정재훈 대리



멘토링 활동, 서로 '원원'하는 소통

(주)원익아이피에스 개발1팀 메탈2파트 정서주 사원은 팀의 홍일점이다. 지난 1월4일 원익 가족이 된 이후 두 달여 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2월29일 부서 배치를 받았다. (주)원익아이피에스 개발1팀 메탈2파트는 그동안 남자 직원들로



는 곳이지 않나. ‘가족같이 생각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했다”면서 “걱정과 달리 부서원들 모두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멘토 정재훈 대리의 첫인상에 대해서는 “웃는 인상이라 친근하게 느껴졌다”며 “첫인상 만큼이나 업무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만 구성된 팀이었으나, 신입사원인 정서주 사원의 합류로 팀 분위기가 더욱 밝아졌다.

“부서 배치를 받은 뒤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메탈 파트가 워낙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곳이라고 들었기에 긴장도 했고, 남자 직원분들만 계신 곳이라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죠.”

지난 4월6일 오전 (주)원익아이피에스에서 만난 정서주 사원은 부서 배치 이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정서주 사원뿐 아니라 여사원이 합류한다는 소식에 부서원들 또한 걱정이 앞섰다고.

정재훈 대리는 “남자들만 있는 부서라 다소 삭막한 분위기가 있어 잘할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했던 게 사실이지만, 정서주 사원이 스스럼 없이 다가왔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예전에는 부서원들 간의 단체 메신저나 회식 자리에서 주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업무 외에도 대화가 많아졌다. 정서주 사원이 이야기도 잘하고 리액션이 좋아서 부서원들 모두 웃는 일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서주 사원은 “매일 얼굴을 마주치고 일해야 하



3개월 간의 멘토링 활동, 빠른 성장 기대

(주)원익아이피에스 개발1팀 메탈2파트는 Metal ALD 및 CVD 공정개발 관련, Tungsten(W) 박막증착에 대한 공정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오는 5월 말까지 3개월 간 진행되는 이번 멘토링 활동을 통해 정재훈 대리는 정서주 사원이 3~4개월 안에 혼자 고객사 대응을 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하며 조연을 아끼지 않고 있다.

3년 전 신입사원이었을 당시 정재훈 대리 역시 멘토링 활동으로 혹독하게 배웠다고, 정 대리는 “3년 전 제가 신입사원 때 느꼈던 점, 어려웠던 일들을 생각해 최대한 옆에 붙어서 일을 가르쳐주려고 노력한다. 그래야 빠르게 성장할거라고 믿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서주 사원이 혼자 고객사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멘토링 활동을 굳이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선배가 후배에게 도움을 준다기 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인 것 같다. 내가 배운 걸 피드백 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오히려 더 공부하게 되는 점도 있다”고 멘토링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같은 선배의 마음을 아는지 정서주 사원은 잘 모르는 업무에 대해 눈치를 보기 보다는 자주 질문하고 반복학습 하면서 적응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은 업무 외에도 성격이 잘 맞아 회사 밖에서도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서주 사원은 “대리님이 맛있는 음식을 찾아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맛있는 식당을 소개해주시면 찾아가보기도 하고, 함께 맛집 투어를 가기도 한다”며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고, 또 그런 소통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잘 알아가면서 업무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고 고마움을 전했다.

정서주 사원의 올해 목표는 스스로 공정 레시피를 짜는 것. 정 사원은 “공정 레시피를 짠다는 것은 이전에 했던 히스토리를 완벽히 파악한 상태여야 한다. 올해 안에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 제 나름대로의 공정을 진행해보고 싶다”고 욕심을 드러냈다.

이에 정재훈 대리는 “지금처럼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며 “부서에서 정서주 사원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고, 기대치도 높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신입사원으로서 힘든 점이 많았을텐데 잘 따라와준 정서주 사원에게 고맙다”며 “업무상 다른 파트와 협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파트와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적극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일상에서 찾는 것

2015년 원익인상 관리혁신 부문상을 수상한 ㈜원익큐엔씨 경영지원본부 시설팀 정하규 대리. 그는 지난해 연간 약 2억원 에너지 절감 달성, 2015년 전기안전 유공자 표창 수상, 설비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쿼츠 사업장 최대 난제인 공장 확장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 외부업체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한 회사 손실 보전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정하규 대리가 이 같은 성과를 이뤄내기까지의 원동력은 ‘일상에서 찾는 행복’에 있었다. 그는 “‘행복’은 특별하지도, 멀리 있지도 않다. 일상에서 찾는 것”이라며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발전이 나의 행복이고, 이를 위해 도전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했을 뿐”이라고 겸손함을 보였다.

낭비되는 비용과 손실에 대한 고민에서 우리의 열정은 시작되다

(주)원익큐엔씨 경영지원본부 시설팀은 세정사업부와 퀴즈사업부, 세라믹사업부, 강릉세라믹사업부 등의 전반적인 건축과 시설, 설비 유틸리티 유지 및 보수, 전기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주)원익큐엔씨의 모든 공장을 관리하다 보니, 그동안 낭비되는 비용과 손실 등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다고. 정하규 대리는 “일을 하면서 예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이 낭비되는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였다”며 “다양



한 고민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인 결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하규 대리의 주요 공적으로는 ▲정부 에너지 효율 시범사업 선정(LED부분)에 의한 지원금 ▲외부업체 불량부품 사용

행위에 대응을 통한 회사 손실 보전 ▲LED 조명 교체를 통한 전력비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Compressor 통합운영을 통한 소모품 및 전력비 절감 ▲생산설비 내 상수도 사용을 공업용수로 전환을 통한 절감 ▲국가산업시설구역 원형 보존지 지목변경 ▲2015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상 수상 등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발전이

나의
행복이고,

도전
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
에 임한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쉽게 이뤄낸 성과는 없겠지만, 특히 LED 조명 교체와 국가산업시설구역 원형보존지 지목변경과 관련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정하규 대리는 “기존의 조명에서 LED 조명으로 교체할 당시 직원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의 환경에 적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직원들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의 설득을 통해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 시공한 이후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99%라는 결과를 얻게 돼 성취감과 희열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이뤄낸 성과

또, 국가산업시설구역 원형보존지 지목변경의 경우 퀴즈사업부 637-3번지가 1983년 구미 국가 제2단지 인가 당시 토지관리처분계획상 공업 및 준공업 지역에 자연상태로 보존토록 하는 원형보존지역이었으나 이 지역을 공장 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2공단 전체를 개발계획 변경하여 산업 단지 및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하규 대리는 “지목변경 허가를 받



팀원들과의 '소통'이 우리의 에너지

(주)원익큐엔씨 경영지원본부 시설팀은 정하규 대리를 비롯해 장경호 대리, 장인환 사원 등 세 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평소 팀 운영에 있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정하규 대리는 팀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하규 대리는 "원익인상"은 혼자 잘해서 수상한 것이 아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주)원익큐엔씨의 임직원들과 시설팀 팀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일을 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오전과 오후 팀원들과의 티타임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항상 옆에서 힘을 주는 장경호 대리, 장인환 사원에게 고맙고, 앞으로도 늘 함께 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주)원익큐엔씨 경영지원본부 시설팀은 올해 정부 에너지효율 시범사업(LED) 2차 사업 진행과 세라믹사업부의 폐열 재활용을 통한 겨울철 난방을 실시,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대기에 방출된 폐열 재활용을 통해 겨울철 난방을 실시할 경우 전력 5,189MWH/년 절감, 비용으로는 약 7억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끝으로 정하규 대리는 "올해는 LED 에너지효율시범사업 2차 사업과 하반기 폐열 재활용을 통한 겨울철 난방 시운전을 통한 도입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시설팀을 맡은 수장으로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시스템 안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기 위한 과정이 사실 가장 힘들었다. 관공서와 공기업을 설득하기 위해 아침-점심-저녁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갔고, '일단 물어붙여보자'라는 식으로 모든 인맥을 총 동원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최종적으로 건축인허가를 받아냈고, 이에 따라 사업장 일원화-유틸리티 비용절감-신규 GAS시설 인,허가 및 설치비용 절감-미래공간확보-재무적 성과(최소 5.4억) 이익-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50

Zoom in

(주)원익머트리얼즈 낚시동호회_ 원익배스클럽



54

Wonik Training

명사특강_ 이주열 MCA(미션컨설팅아카데미) 이사

원익인의 자부심으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가 슝 벅 찬
행 복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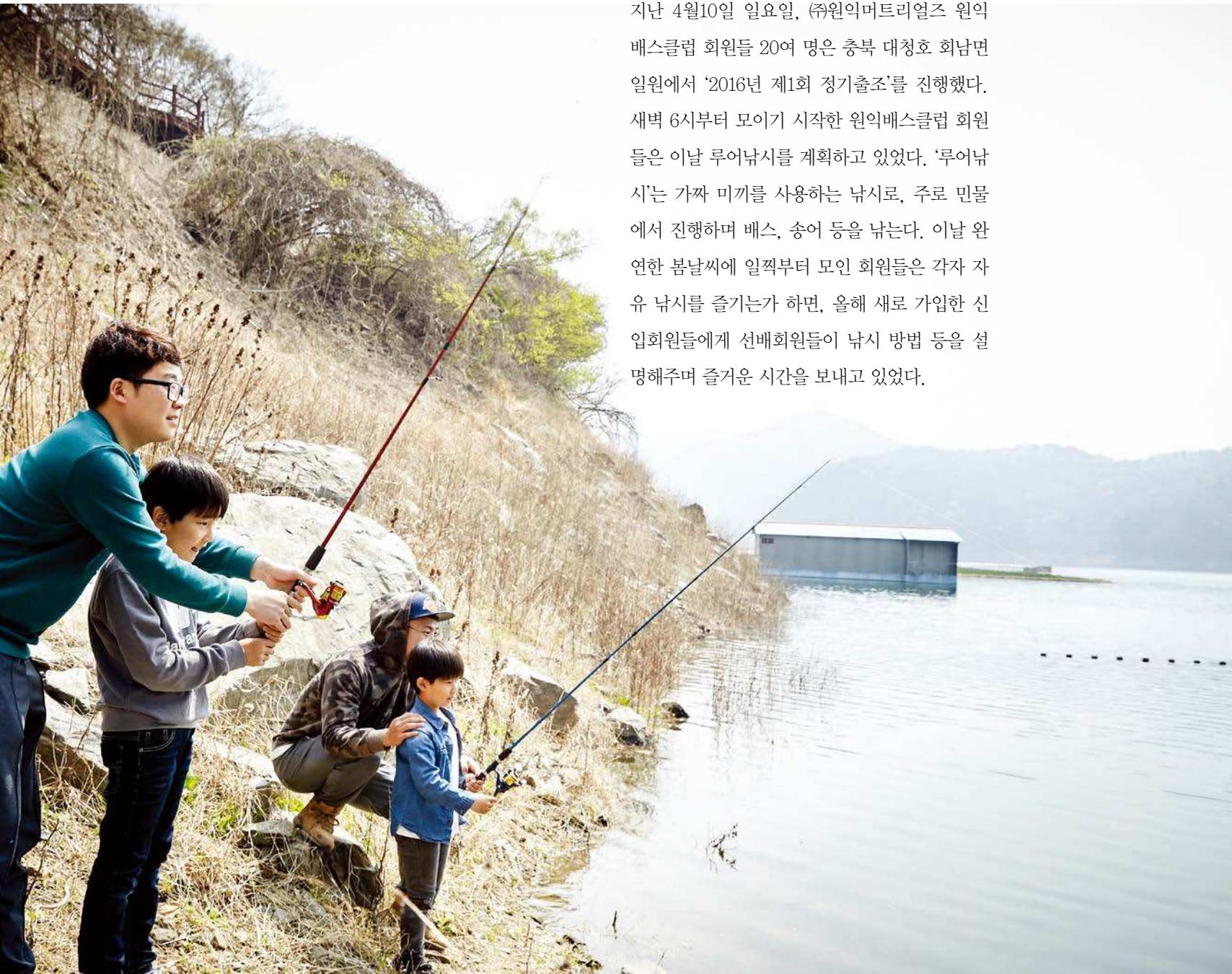
Special Edition

(주)원익머트리얼즈 2016 상반기 사내행사

‘가족, 연인, 동료들과 행복한 추억을 낚는 원익배스클럽’

(주)원익머트리얼즈 낚시동호회 ‘원익배스클럽’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10여 년간 활동해온 장수 동호회다. 공식적으로는 1년에 세 번, 루어 낚시와 쭈꾸미 낚시, 빙어 낚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회식 등 다양한 모임을 통해 회원들끼리 자주 모여 소통하고 있다. 회원들끼리의 단합과 우정이 그 어느 동호회보다 끈끈하다고 자부하는 ‘원익배스클럽’은 평소 회원들 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올해도 역시 첫 행사로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봄나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4월10일 정기출조 행사를 가졌다.

지난 4월10일 일요일, (주)원익머트리얼즈 원익배스클럽 회원들 20여 명은 충북 대청호 회남면 일원에서 ‘2016년 제1회 정기출조’를 진행했다. 새벽 6시부터 모이기 시작한 원익배스클럽 회원들은 이날 루어낚시를 계획하고 있었다. ‘루어낚시’는 가짜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로, 주로 민물에서 진행하며 배스, 송어 등을 낚는다. 이날 완연한 봄날씨에 일찍부터 모인 회원들은 각자 자유 낚시를 즐기다가 하면, 올해 새로 가입한 신입회원들에게 선배회원들이 낚시 방법 등을 설명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원익배스클럽은 낚시는 물론이고 회원들끼리의 단합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올해 (주)원익머트리얼즈에 입사한 공채2기 신입사원 7명 중 오창에서 근무하는 5명이 원익배스클럽의 매력에 신규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신규회원인 품질관리파트 임병하 사원은 “평소 막연하게 낚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마침 입사 이후 낚시동호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입하게 됐다”며 “가입 이후 오늘 처음으로 낚시에 도전해보는데, 생각보다 어렵다.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게 승부욕을 자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안전파트 신재인 사원은 “입사 후 신입사원 OJT를 받으면서 동호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 낚시동호회 활동이 재미있을 것 같아 가입했다”면서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밖에 나와 낚시 하니 힐링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낚시도 좋지만,
웃고 대화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행복**

원익배스클럽은 2007년 첫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0여 년간 꾸준히 활동해왔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설비팀 백현석 주임은 낚시동호회 인기 비결에 대해 “나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활동하며 선후배 사원들끼리의 어울림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낚시는 무엇보다 함께 즐기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소통하기 좋은 동호회가 아닌가”라며 “낚시 자체가 개인의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직장 동료들은 물론 가족이나 연인들도 함께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에 회원들의 참여율도 높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원익배스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제조1팀 김영민 사원 역시 “행사를 기획하면서 꼭 낚시에 중점을 둔다기 보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더 많이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오늘은 새벽부터 모였는데 날씨도, 풍경도





좋고, 사람들이 즐겁게 활동해주니 기쁘다. 앞으로도 낚시에 국한된 활동이 아닌, 누구나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동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즐거운 점심식사, 경품 이벤트의 행운까지!

‘가족, 연인들과 함께하는 봄나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만큼, 이날 행사에는 부인과 아이들, 연인과 함께 온 회원들이 눈에 띄었다. 초등학생 두 아들과 함께한 전중석 대리(UAN팀)는 “이런 계기가 아니면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오늘 이렇게 나오니 아이들도 좋아하고 행복하다. 낚시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5살난 딸과 함께 참여한 설비팀 김시원 과장도 “평상시에는 집에 가도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는데, 오늘 같이 나오니까 너무 좋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23개월 아들을 데리고 온 제조1팀 박준영 과장의 부인 고준아 씨는 “평소에도 가족들과 야외활동을 자주 하지만, 오늘은 특히 더 기분이 좋다. 오는 길에 벚꽃 구경도 하고 아이도 즐거워한다”면서 “직장 동료들끼리만 하는 동호회 활동에서 벗어나 가족과 연인들을 초대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주는 문화가 참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루어낚시를 마친 원익배스클럽 회원들은 미리 준비해온 바비큐와 다양한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며 간단한 맥주와 음료도 곁들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또 전자레



인지, 토스터기, 헤어드라이어, 퍼즐 등 경품을 준비해 나누는 이벤트도 진행, 설비팀 김시영 과장, 제조관리팀 송인욱 사원, 제조1팀 김만식 과장, UAN팀 변종원 대리, 그리고 원익배스클럽 백현석 회장이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끝으로 백현석 회장은 “이번 루어낚시 외에도 가을에는 안면도에서 주꾸미 선상낚시, 겨울에



는 빙어낚시 등을 진행한다. 또한 송년회 및 신년회, 각종 소모임, 이벤트 등을 진행해 회원들이 보다 더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 계획”이라며 “오늘처럼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하는 자리도 자주 마련해 회사와 가정의 행복을 도모하는 동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원배클, 행복한 추억을 남겨드리겠습니다.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원익이 지난 3월17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DHK솔루션빌딩 강당에서 명사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명사초청 특강에는 이주열 MCA 이사 / 컨설턴트가 초청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전략 및 생산성을 높이는 영업활동 등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자

이주열 이사는 대학을 졸업한 뒤 120:1의 경쟁률을 뚫고 1997년 은행원이 되었으나 3년 반 만에 퇴사, LG전자를 거쳐 컨설팅 회사에서 14년간 근무하다 3년 전 독립했다. 2005년 일본의 지식 근로자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인 'DIPS'(가시화'와 '선행관리'를 키워드로 올바른 업무 진행

법과 시간 사용법, 매니지먼트법 이라는 측면에서 행동습관을 바꿔가는 활동,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에 관한 책을 내 국내에 처음 일본의 컨설팅 방법론을 도입했으며, 국내 많은 기업들이 이를 도입해 성과를 냈다.

현재는 청년들을 위한 컨설팅을 비롯해 국내 기업에 마케팅 / 영업실행 체계수립 / 비즈니스 모



델 설계 / 영업 조직 설계 및 생산성 향상 / 마케팅 역량강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영업과 R&D에 관련한 책을 출간할 계획이다.

이날 이주열 이사의 강연에는 원익의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주열 이사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전략 및 생산성을 높이는 영업활동 등을 위한 방안에 대해 3시간여

동안 열띤 강연을 펼쳤다.

먼저 이주열 이사는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문제에 대해 짚었다. 그는 “일종의 사회 공헌활동으로, 대학생들을 선발해 매 학기마다 20~25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자신이 될 해야 될 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 내가 될 좋아하고 될 잘하는 지 보다 점수 따는 공부만 해왔고, 진로를 위한 공



부가 아닌 진학을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뭘 해야 할 지 모르는 것"이라며 "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원익그룹도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는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중-장년층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이사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2045년에는 평균 인류의 수명이 130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한다"며 "지금 우리는 인생을 재설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한다. 가장 좋은 창업스쿨은 바로 회사다. 회사의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고 자기다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닌 고객 창조

이주열 이사는 이날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중 기업문화의 중요성과 기업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 회사가 회의할 때 고개를 숙이는 문화인지, 아니면 박수를 치는 문화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열심히 하라고 압박한다고 해서 실적이 오르지 않는다. 이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멘탈 붕괴 상태로 나가는 것과 같다"며 "리더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어떤 문화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업의 존재 목적은 단순한 이윤 창출이 아니다.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라며 "고객이 없으면 이윤 추가도 없다. 고객을 창조하기 위해 우리는 신규 고객 유치와 더불어 기존 고객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객이 변하면



우리도 변하고, 고객이 생각하고 느끼는 가치가 변하면 그 가치를 찾아내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이 마케팅"이라며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고객의 변하는 가치를 찾아내고 만들고 전달하고 유지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컨텐츠를 가진 자가 이긴다

이주열 이사는 현재는 정보화 기술(IT) 시대에서 DT(Data Technology)시대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DT 시대는 "데이터 컨텐츠가 장악하는 시대, 컨텐츠를 가진 자가 이기는 시대"라고 정의했다. 이어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영혼이 있는, 감동이 있

는 기업"이라며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일, 그러면서 수익성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역 파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을 양성,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주열 이사는 생산성을 높이는 영업활동에 대해 "핵심행동을 습관화, 규칙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의 경우 매일매일 10명의 고객에게 전화하고, 5명의 고객에게 디엠을 발송하고, 3명의 고객을 만나면 역대 연봉을 가져갈 수 있다"면서 "어떤 목표에 대해 순간적인 열정은 누구나 갖고 있다. 이 중 승리하는 사람은 순간의 열정을 규칙화하고 습관화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소통과 화합, 한마음 Hope Day~ “당신! 멋져!”



㈜원익머트리얼즈가 지난 3월23일 오후 6시, 2016년 상반기 첫 사내행사로 ‘한마음 Hope Day’를 개최했다. 이날 ㈜원익머트리얼즈 THE Kitchen에서 열린 ‘한마음 Hope Day’에는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맥주, 흥겨운 음악과 다양한 이벤트 등이 준비돼 직원들이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다양한 먹거리와 세계 맥주, 통 큰 경품의 행운까지!

‘한마음 Hope Day’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원익머트리얼즈 이현덕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간단한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겸한 소통과 화합의 장인 만큼, 직원들은 업무를 잠시 내려두고 그동안

동료, 선후배와 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먼저, 이날 ㈜원익머트리얼즈 이현덕 대표이사는 “오늘 이 자리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 자유롭게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직원들에게 건배를 제의했다.

건배사는 “당신!”, “멋져!” 였는데, 앞 글자를 만



의미에 대해 이 대표이사는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있게 살자',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상대방에게) 저주면서 살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주)원익머트리얼즈 대표이사로 취임해 3개월여 간 직원들과 함께한 이현덕 대표이사는 "처음엔 어색하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지 않고 대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덕분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고, 서로를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원익머트리얼즈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사업계획 중 하나가 조직문화를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벤트나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었는데,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임직원들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사 전체 또는 각 조직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직원들의 노래 자랑에 분위기 '후끈'

이날 열린 '한마음 Hope Day'에는 세계 각국의 유명 맥주들과 간단한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는 물론이고, 세탁기와 백화점 상품권 등 통 큰 경품이 준비됐다. 경품 추첨의 경우 전의, 판교 근무자와 오창 교대 근무자를 배려해 사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밴드'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추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날 근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도 경품 당첨의 행운이 돌아갔다.





경품 추첨에 앞서 직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맥주를 마시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는 백화점 상품권을 건 직원들의 노래자랑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입사 전 각종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할 정도로 뛰어난 노래실력을 자랑한다는 제조1팀 오종택 사원은 이날 가수 박효신의 '야생화', 노을의 '그리워 그리워' 두 곡을 열창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으며, 출하파트 조한신 사원과 기술팀 노경민 사



원 역시 훈훈한 노래 실력을 뽐내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후 행운권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과 액티브워시 세탁기 등 경품 행사가 진행돼 직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한마음 Hope Day'에 참여한 (주)원익머트리얼즈 제조관리팀 홍준원 주임은 "사장님 취임 후 복리후생을 비롯해 직원들을 많이 배려해주시고,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



같이 감사하다”며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맥주, 경품 등을 준비해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자리가 기업문화 정착과 직원들의 조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이번 ‘한마음 Hope Day’를 기획한 인사총무팀 이성운 부장은 “2016년 상반기 첫 행사인 만큼 정말 많이 고민하고 준비했다. 어떤 행



사로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즐겁게 소통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고 참여도가 높아 기쁘다”면서 “하반기에도 오늘처럼 비어라운지 형식의 행사를 진행할 지,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무비데이를 진행할 지 모르지만, 오늘 ‘한마음 Hope Day’처럼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내일을 향한

원익 다이아몬즈 회원들의 우정과 화합

진정한 경기는 즐기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의 경기를 즐긴다!

경기가 잘 안 풀려도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스포츠는 쉽게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상대팀의 전력을 파악한 뒤 부족한 점을 찾아내 공격을 펼친다 해도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실력이 비슷한 팀이라고 해도 경기 당일 선수들의 컨디션 등 승부를 가르는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선수들은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비록 경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한 경기를 펼쳤다면, 앞으로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이 생길 터. 여기에 승부 보다 더 뜨거운 '우정'과 '화합'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값진 결과가 아닐까.

지난 3월27일 오후 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백현야구장에 (주)원익큐브 야구동호회



'원익 다이아몬즈' 회원들이 모였다. 지난 2011년 결성된 '원익 다이아몬즈'는 현재 (주)원익큐브 수지사업부 장문수 과장을 주축으로, 20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된 야구동호회다. 매년 사회인야구 리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경기가 없는 주말에는 회원들끼리 따로 모여 연습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첫 성남리그 참여한 원익 다이아몬즈!

지난해까지 한강리그에서 뛰었던 '원익 다이아몬즈'는 올해 처음으로 성남리그-일요루키B조에 참여해 3월 13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유스가디언스'와의 첫 경기에 이어, 이날 수정구리틀야구단의 아빠들로 구성된 '부전자전' 팀과의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었다.

'원익 다이아몬즈' 장문수 감독은 "지난해까지 한강리그에 참여하다 올해 처음으로 성남리그-일요루키B조에 참여하게 됐다. 성남리그-일요루키B조에는 우리 팀을 포함 총 12팀이 속해있는데, 11개 팀과 모두 경기를 펼친 뒤 4위 안에 들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처음 성남리구에 참여한 만큼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면서 “오늘 경기가 어떻게 풀릴 지 모르지만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부에 연연하기 보다 운동을 즐기는 데 의미!

이날 경기에는 총 11명의 회원들이 참가했다. 경기에 앞서 ‘원익 다이아몬즈’ 장문수 감독은 출전선수 명단을 작성하고, 회원들은 야구 장비를 점검하고 함께 몸을 푸는 등 차분하게 경기를 준비했다.

경기는 초반부터 쉽지 않았다. 1회초 상대팀에 11점을 내준 ‘원익 다이아몬즈’는 1회말 1점을 내



는데 그쳤다. 이어 2회초 6점을 더 내준데 이어 3회초 또다시 5점을 더 내주고 말았다. 하지만 3회초 오영신 대표이사와 서혁준 과장(화학사업부), 조건희 부장(실리콘사업부)이 2명의 선수가 한번에 아웃되는 더블플레이를 성공시켰고, 이어진 3회말 서혁준 과장과 강지민 사원(건재사업부), 임주성 과장(경영지원팀), 오영신 대표이사의 활약으로 3점을 만회했다.

이에 박진우 과장(재경팀)은 “세 사람의 더블 플레이가 너무 멋지다”고 환호하며 “오늘 성적은 비록 좋지 않아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또, 9살 아들과 함께 야구장을 찾은 조건희 부장은 “지난해 한강리구에서는 나름 잘한 편이었다. 최종적으로 중간 정도의 순위를 유지했다”면서 “오늘 막강한 상대를 만난건지, 아니





면 우리가 그동안 연습이 부족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게임을 즐기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경기를 즐기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부장은 '게임을 즐기는데 의미를 두겠다'고 했지만, 평소 야구에 관심이 많다는 아들 조민규 군은 "오늘 삼촌들이 잘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난다"고 아쉬움을 토로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22:4 라는 스코어에서 이어진 4회초, 투수로 나선 변지훈 대리(수지사업부)가 상대팀에 단

1점 만을 허용했고, 이에 '원익 다이아몬즈' 회원들 사이에서는 "의외의 에이스다", "슈퍼스타가 여기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어 이날 경기의 마지막인 4회말 '원익 다이아몬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3점을 추가하며 23:7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신규 회원들의 활약, 우리의 미래는 밝다!

경기는 비록 23:7이라는 큰 점수차로 '원익 다이아몬즈'가 패했지만, 예상치 못한 신규 회원들의 활약으로 앞으로 남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강지민 사원, 김성욱 사원, 류찬하 사원이 합류한 데 이어 올해 '원익 다이아몬즈'에 가입한 신규 회원은 민동준 대리, 서혁준 과장, 김원경 사원, 한영일 사원(씨엠에스랩) 등 총 4명이다.





이날 경기가 끝난 후 서혁준 과장은 “평소 운동을 워낙 좋아해 이번에 야구동호회에 가입하게 됐다. 앞으로 동호회 활동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내 연습할 예정이다”라며 “원익 다이아몬즈의 에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원익 다이아몬즈’ 장문수 감독은 “오늘은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아쉽지만, 오늘 경기를 발판 삼아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겠다”면서 “그래



도 오늘은 떠오르는 별들을 발견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다. 신규 가입한 회원들의 활약을 보니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이어 “원익 다이아몬즈”는 (주)원익큐브 직원들은 물론 현재 씨엠에스랩의 한영일 사원 등 2명의 계열사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판교 원익빌딩에서 근무하는 원익 계열사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열사 야구단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많은 호응과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글 윤보라 • 사진 김동관



Festival

[봄축제, 그 따스함]

두근두근 설레이는 봄축제

추운 겨울이 가고 두근두근 설레는 봄이 왔다. 따스한 봄 햇살에 가까운 공원이나 전국 관광 명소는 주말마다 웃음꽃이 가득한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봄 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봄 꽃 축제는 물론,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 축제 등 기분 좋은 봄 나들이를 할 수 있는 축제의 현장이 곳곳에 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봄 축제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다양한 재미를 느껴보자.

● 고양 국제꽃박람회

대한민국 화훼 메카로 자리잡은 '고양 국제꽃박람회'가 4월29일부터 5월15일 까지 17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개최된다. 실내전시는 국내외



화훼 관련 기관 및 업체가 참가해 여러 화훼류와 신품종을 전시하며 희귀, 이색 식물관 등이 열린다. 야외정원에서는 한류문화와 K컬처 등 현재와 미래를 다룬 정원인 K-culture 환희 정원과 K팝과 한류 관광지를 영상으로 연출한 K-STAR Fever Garden 등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야간 개장을 위해 꽃과 일루미네이션의 환상적인 '빛으로 노래하는 장미정원'을 특별 조성했으며, 매일 저녁 다양한 공연은 물론 주말에는 오케스트라 연주, 클래식 연주, 7080노래 공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2016. 4.29 ~ 2016. 5. 15)

● 합천 황매산철쭉제

전국 최대의 철쭉군락지와 전국 제일의 등산코스로 알려진 모산재와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고찰 영암사지가 있는 황매산 국립공원에서 개최되는 합천 황매산철쭉제는 매년 5월초 전국 관광객들을 진홍빛의 매력에 흠뻑 젖게 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철쭉제례, 철쭉삼기, 연날리기, 보물찾기, 철쭉페이스페인팅, 사진촬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축제기간에는 산채비빔밥, 한우국밥, 도토리묵, 춘두부, 부침개 등 다양한 먹거리가 선보이는 토속음식점이 개설된다.

(2016. 5. 1 ~ 2016. 5. 22)



● **여주**
도자기축제

여주 신록사 관광지 일원에서 열리는 '여주도자기축제'는 올해로 28회를 맞는 유서 깊은 축제다. 올해는 '도자천년, 물결 따라 행복여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91개 도자업체가 참가해 도자기를 전시, 판매한다. 또한 여주도에명장 전시관과 무형문화재 전시관에서는 현대 도자의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자접시깨기 대회,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도자기 흙 밟기, 물레돌리기, 머그컵납시 등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국악 - 판소리 - 밴드 - 댄스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진다.

(2016. 4. 30 ~ 2016. 5. 22)



● **아침고요수목원**
봄나들이 봄꽃축제

경기 가평에 위치한 아침고요수목원에서 열리는 봄나들이 봄꽃축제는 주제별로 구성된 정원에 약 200여 종의 봄꽃을 심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3월 말부터 다양한 봄꽃을 심어 3월 중순부터 산수유, 생강나무, 히어리를 볼 수 있고, 4월에는 벚꽃, 목련, 매화, 수선화, 진달래, 튜립, 철쭉 등이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특히 하늘 길에 식재된 50여 종의 약 6만 송이 튜립이 달빛정원까지 이어져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축제 기간에는 봄 향기 음악회와 각종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2016. 4. 16 ~ 2016. 5. 31)



● **전주**
한지문화축제

전북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전주한지문화축제는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한지공예 경진대회를 통해 전국의 우수공예인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문화 축제에서 벗어나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한바탕 어울림 축제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주한지코스튬플레이패션쇼, 한지등테마전시, 한지등 소원볼(축구볼) 전시 및 소원쓰기, 한지공예체험, 한지전래놀이체험, 한지막걸리잔 막걸리 먹기체험, 가족창호문바르기대회, 어린이 한지줄다리기(지승놀이), 전주한지 기접놀이, 상모놀이 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2016. 5. 5. ~ 2016. 5. 8)



Economy

[ISA & 특판적금]

100세 시대 재테크 이젠, 선택 아닌 필수

100세 시대 재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현실은 노후 대비는 커녕 결혼, 자녀 양육 등 갖가지 이유로 안정적인 재테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통상 2% 미만인 상황이고, 일정 금액의 목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식이나 펀드를 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다.

또한 시중은행의 2% 이상의 금리를 주는 상품이나 여러 비과세 상품은 가입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연 5%대의 특판적금 상품과 이른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눈길을 끈다.



지난 3월14일 출시된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이 한 계좌에서 관리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 혜택이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다.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며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 지방세 포함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ISA는 의무 가입기간이 5년이다. 때문에 당장 2~3년 안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가입기간 3년, 비과세 한도 250만원이니 눈 여겨 볼 만하다.

ISA는 고객이 직접 투자 자산을 지정하는 신탁형과 투자를 금융기관에 일임하는 일임형이 있다.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투자 자산 선택이 자유롭지만 개인이 창구를 방문해 편입할 상품을 골라야 한다. 만약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면 일임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임형은 한 번 자신의 투자 성향이 정해지면 금융회사가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대로 굴릴 수 있다. 4월18일부터

10개 금융회사가 일임형 ISA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ISA 계좌를 개설할 뿐만 아니라 가입 후 운용지시와 모델포트폴리오 재조정 등도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판 적금

초저금리시대, 시중 은행의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2% 미만인 상황인 가운데, 최고 연 5%대 특판 적금이 나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카드 실적이나 직장인 우대, 동반 가입 등 가입 조건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자.

웰컴저축은행

Welcome 체크플러스 m-정기적금



'Welcome 체크플러스 m-정기적금'은 1년 만기 기준 금리가 4.0%로, 30일 기준 시중은행 적금 상품의 최고 금리의 두 배 가량 높다. 당행 체크카드 월 30만원 이상 사용면 연 1% 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납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이다.

OK저축은행

배구단 우승기념 정기예금 특판



OK저축은행은 러시앤캐시 배구단 우승을 기념해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2.1%에 우대 금리 0.2%를 추가한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출시했다. 가입 금액은 1인당 최대 2,000만원이고, 총 한도는 1,000억원으로 모든 영업점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KB저축은행

KB착한e-plus 정기적금



KB저축은행의 'KB착한e-plus 정기적금'은 1년 만기 기준 연 3.4%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인터넷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3.4%의 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월 납입금액 500만원 이하이다.

우리종합금융

The조은 정기적금



최고 금리 5%의 'The조은 정기적금'은 약정금리는 3%지만 적금 가입 기간 중 발행어음과 CMA 잔액이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이상이고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최고 1.5%의 금리를

추가할 수 있다. 월 납입액은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이며, 동반가입이나 직장인 우대, 60세 이상 등 우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최고 0.5% 금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Trend

[새봄, 컬러 트렌드]

새봄
핑크,
그 유혹을 따라



따스한 햇살과 살랑이는 바람,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득한 봄, 벚꽃을 연상시키는 '핑크'가 대세로 자리잡았다. 겨울이 무채색이라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맞은 따뜻한 봄에는 포근한 느낌의 파스텔톤의 색상이 떠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올해는 그중에서도 유난히 '핑크' 컬러가 패션은 물론 외식업계까지 장악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의 색
Rose Quarts
연한 핑크

매년 유행하는 색을 발표하는 미국 색채 연구소 '팬톤'은 올해의 색으로 '로즈 퀴츠'(Rose Quarts, 연한 핑크)를 선정했다. '로즈 퀴츠'는 파스텔 계열의 핑크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컬러다. 올해의 색으로 선정된 만큼, 화사한 봄을 닮은 파스텔 핑크인 '로즈 퀴츠' 색상은 다양한 봄 신상품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핑크'하면 여성들의 메이크업이 떠오른다. 시선을 끄는 핑크빛 입술을 위한 제품들과 화사한 봄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줄 핑크빛 블러셔 등이 일명 '벚꽃 메이크업'을 위한 아이템들이다. 특히 '벚꽃 메이크업'은 입술과 볼 뿐만 아니라 V존, 눈 안쪽 등에 적용하면 얼굴이 환해 보이는 봄 메이크업 효과를 준다.

패션업계도 봄 시즌을 맞아 핑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여성의 취향을 저격할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이 출시되었는데, 특히 봄에 잘 어울리는 블라우스는 핑크 컬러로 더욱 사랑스러워졌고, 가벼운 봄 재킷이나 원피스 등의 다양한 신상품이 출시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핑크 컬러의 슈즈와 액세서리, 가방, 미러 선글라스, 스카프 등도 대거 출시되었으니, 의류가 부담스럽다면 핑크 컬러를 포인트로 준 스타일링으로 화사하게 연출할 수 있다.

핑크 컬러라고 해서 여성들에게만 인기 있는 건 아니다. 올 봄에는 남성들도 핑크 컬러의 바지나 셔츠 등을 많이 찾는 추세라고. 봄 나들이 데이트룩으로 핑크 컬러를 선택한다면 섬세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와 함께 넘치는 패션센스를 뽐낼 수 있을 것이다.

핑크 컬러의 인기는 패션 뿐 아니라 외식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외식업계는 딸기, 피치, 체리 등 다양한 핑크 컬러의 과일과 각 브랜드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신 메뉴를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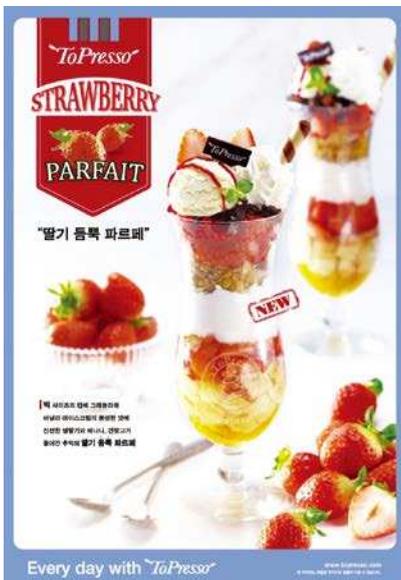
외식업계도
핑크
마케팅

Trend

[새봄, 컬러 트렌드]



먼저 커피전문 브랜드인 '토프레스'는 신선한 제철 딸기를 활용해 핑크빛의 '딸기듬뿍파르페'를 출시했다. '딸기듬뿍파르페'는 신선한 딸기에 복고 트렌드를 입혀 10~20대 입맛은 물론, 30대 이상의 고객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커피빈 역시 올 봄 트렌드인 핑크 컬러를 반영해 '피치 피치 아이스 블렌디드'를 출시, 과일 퓨레 함량을 기존 자사 제품 대비 2배 가까이 늘려 진한 복숭아의 풍미를 구현해냈다.

데일리 티 플레이스 '공차코리아'는 '차에 빠진 딸기 3종'을 내놨다. '차에 빠진 딸기 3종'은 '스트로베리 밀크티', '스트로베리 그린티 에이드', '스트로베리 크림 스무디'로, 출시 직후 큰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 메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매 시즌마다 시즌한정메뉴를 선보이고 있는 스타벅스는 올 봄 시즌한정메뉴로 체리블라썸 3종을 출시했는데, '체리블라썸 라떼', '체리블라썸 화이트 초콜릿', '체리블라썸 크림 프라푸치노'는 한국에서 개발한 벚꽃 파우더와 체리 향이 어우러져 봄 음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체리블라썸 초콜릿 토핑을 통해 흩날리는 벚꽃의 화사함을 표현해 눈길을 끈다.



번호가 나오기까지
함께 하신 원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익사보 2016년 봄호 원익인 통권 46호
발행인 이재현
발행일 2016년 4월
발행처 원익
본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원익빌딩 9층
디자인 비즈커뮤니케이션즈 010.4742.2088

사보 '원익인'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원익 고건호
이기복

(주)원익큐엔씨 도현수
이민희

신원종합개발(주) 현승훈
한영석

(주)원익아이피에스 권기용
차유리

(주)원익머트리얼즈 권봉진
신희숙

(주)위닉스 안희태

(주)테라세미콘 최낙준
방주현

(주)원익큐브 진종언
윤세련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윤용인

(주)씨엠에스랩 오삼열
권혁화
박지현

원익엘앤디(주) 김기현
조만현

기획조정실 김동철
서재원



Cell Fusion C
CELL MEMBRANE STRUCTURE

탈모는 유전보다 두피의 질병
탈모 솔루션의 기적, **인크레어 샴푸**



식약처 의약품 인증
양모·두피 각질·모발 인장력
개선 임상 효능 테스트 완료

NEW 인크레어 M 샴푸 남성 탈모용

최적의 두피 환경을 제공하는 HGF™가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여 건강한 두피와 풍성한 모발로 관리해줍니다.

HGF™란? 정크피리치온, 멘톨, 센텔라추출물, 니코틴아미드가 함유된 두피 및 모발 관리 복합체

전국 유명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cellfusionc.com 고객센터담실 080-447-1820